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첨단 스마트 제품 수석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노승혁의 조기유학 성공기



첨단스마트제품 디자이너 노승혁씨

11살 때 도미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 전전하며 홀로서기 유학생 생활만 있지 못하는 성정, 하고 싶은 것 하도록 권장 도움 준 미 교육 퍼즐을 풀듯이 여러 가지 요인 조합하는 제품 디자인 매력에 푹 빠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 조기유학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스마트제품 디자이너 노승혁씨는 이를 비웃듯 조기유학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주목을 받고 있다.

11살 때 홀로 유학 길에 올라 낯선 문화와 색다른 언어환경에서 홈스테이 및 기숙사를 전전하던 노승혁(Scott Noh, 30) 씨는 미국 첨단 기업들을 상대로 스마트 제품을 디자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디자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본사를 둔 로프트(Loft, LLC)사 디자이너 노승혁(Scott Noh, 30)씨는 보스톤과 프로비던스를 오가며 삼성, 보스(Bose), 델, 하스브로(Hasbro), 타미(Tomy), 스퀘어(Square), 시게이트(Seagate), 샘소나이트(Samsonite) 등의 대기업은 물론 하버드, MIT 등의 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가전제품에서부터 의학, 완구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디자인한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어릴 적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집에 있던 시계란 시계는 다 분해 본 것 같아요. 다시 조립을 못해서 어머니께 호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교육방식과 지원으로 저는 어린 나이에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학교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한국의 수업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에게 유학은 새로운 기회였다. 11살이던 어린 나이에 시애틀에 건너와 홈스테이에 머물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게 호기심 많고 자주 움직여야 하는 그에게는 오히려 나왔다. “가만히 한 군데 앉아있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권장해 준 교사들에게 ▶▶7면으로 계속

MA에서 H-1B 취업비자를 썩쓸이 해가는 회사들은?

매사추세츠, 미국서 9번째로 외국인 취업 많은 주
회계 분야, IT 및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수요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미 이민국이 2018년도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시작을 다음달 3일로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취업비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올해의 H-1B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운데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H-1B 비자 보유 고용회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취업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난달 예고했었다. 새로운 H-1B 취업비자 강화 법안에 따르면 현재 H-1B 최저임금인 6만불의 두 배 이상인 13만불을 최저임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더 높아질지 모르는 H-1B비자 문턱 때문에 접수는 예년처럼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H-1B비자는 6만 5천명의 학사형 쿼터와 2만명의 석/박사형 쿼터는 제한되어 있다. 접수의 조기 마감시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 당첨자를 결정하며, 작년에는 닷새만에 마감되어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 항공권 \$899~

향년 47주년
한국항공권익이득기는
도쿄여행 패키지

한국행 항공권 포함기! (미국-일본 직항)
도쿄 시내 호텔 3박, 항공 공항리무진버스, 도쿄일일관광
▶ 원하는 일정으로도 커스터마이징 가능! (1인 기준 12인일 사용가능)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최 | 지도 | 커미션
성실한 도덕적 책임감

Eileen Park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REMIERREALTY.COM

재외국민 조기대선 유권자 등록 3월 30일 마감

2회 이상 재외투표 불참자는 재신청해야 재외국민 대선 투표 4월 25일부터 30일 6일간 보스톤 재외 선거관리위원장 남궁연, 부위원장 윤미자 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19대 대통령 조기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마감이 3월 30일 목요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선 반드시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가장 간단하게 선거권 웹사이트(재외선거 검색하면 됨)에서 할 수 있다. 또는 뉴튼소재 보스톤총영사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재외 선거인으로 이미 등록된 선거인의 경우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재외투표가 가능하다. 단,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 선거인은 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보스톤 총영사관은 19대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남궁연씨를, 부위원장으로 윤미자씨를 재지명했다. 남궁연 선거관리위원장은 2012년 최초 재외선거부터 선거위원장을 맡아 계속 연임해오고 있다.

남궁연 보스톤재외선거관리위원장

은 편지를 통해 보스톤지역은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총 1,364명의 유권자중 689명이 투표해 50.5%의 투표율을 기록해 미국 본토 내의 투표율 1위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뉴잉글랜드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의 높은 정치적 안목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사료되어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2012년 12월 실시됐던 제 18대 대선 주 보스톤 총영사관 선거관리지역에서는 총 유권인 수 12,890명 중 3542명이 등록했다. 보스톤 투표율은 27.5%로 미국내 평균 투표율 6.0%로 보다 4.6배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130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 프랑스 대사관이 30.0%에 이어 2번째 높은 투표율이었다.

올해 대선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의 재외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선거법을 개정 탄핵에 따른 재외국민 선거를 가능케 했다.

1. 등록일자 : 3월 11일~ 3월 30일(20



남궁연 보스톤 재외 선거관리위원장

일간)

2. 신고·신청방법: 신고·신청은 4가지 방법이 있으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검색창에 ‘재외선거’ 검색 또는 ok.nec.go.kr으로 접속하거나 ova.nec.go.kr으로 접속)

3. 등록방법: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1) 국외부재자: 주민등록 소지자 및 단기 체류자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필요)

2)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2회이상 재외선거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신 분들은 재등록 필요)

4. 투표일자: 4월 25일~4월 30일(6일간)

hsb@bostonkorea.com

강원도 농수산물 봄맞이 특별 판매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7년 신년 봄맞이 강원도 청정 웰빙 식품 판매전이 로렌스 소재 판매점 (155 Parker St. Lawrence, MA)에서 개최된다.

3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열리는 강원도 농수산물 판매전에는 강원도산 도루묵, 찹옥수수, 더덕무침, 도라지 무침 등 반찬류, 각종 젓갈류 황태 등 건어물류, 멸치, 다시마 등을 비롯해 100% 된장, 고추장, 어간장, 국내산 참기름 등 20여개 업체의 130여 품목의 제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미동북부 강원도민회가 후원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종수 대표(732-513-4369)에게 할 수 있다.



세한 문의는 이종수 대표(732-513-4369)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 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는 4월 9일 일요일 오후 4시 보스톤메디컬센터에서 (Preop Clinician's 역할과 Assessment)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간호학교 재학생 및 의료서비스 관계자 간호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 후 식사 및 교제 질문 응답 시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는 이현정 617-755-9129/0102vm@gmail.com

대상: Nursing Student, NP student, RN, NP 및 healthcare provider

일시: 4월 9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Boston Medical Center, 725 Albany st Boston MA 02118 Conference room#1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사추세츠에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는?

▶▶1면에 이어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특히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 인여부를 판별해 주는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이 6개월간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속에 H-1B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많은 주와 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무부와 노동부는 2016년 외국인 노동 비자 통계와 2015년 외국인 노동자 노동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각각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H-1B 비자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222,634명)였다. 텍사스 (117,773명), 뉴욕(98,216명), 뉴저지 (75,919명), 펜실베이니아(74,987명)가 그 뒤를 이었고, 매사추세츠 주는 41,182명으로 H-1B비자 노동자가 9 번째로 많았다.

매사추세츠의 H-1B비자 보유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은 보스턴이었다. 보스턴은 15,614명의 H-1B 노동자가 근무하여 주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H-1B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캠프리지 (2,784명), 퀸시 (2,075명), 월담 (1,686명), 홀리스톤 (1,367명)이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H-1B 비자 보유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주로 회계분야와 IT업종이었다. 세계 4대 법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보스턴 지사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보스턴 지사가 4,540명과 3,368명의 H-1B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내에서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H-1B 노동자 보유 기업이었다. IT업종에서는 카그너전트(2위, 3,430명), 와이프로(4위, 1,892명), 캡제미니 (1,064명)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천명 이상의 H-1B비자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최저연봉은 약 5만달러, 최고연봉은 22만5천달러였다.

최근의 주 내 H-1B 비자의 취업동향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컨설턴트 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머, 시스템 개발과 같은 상위 5개 직종이 모두 IT 관련 산업종사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와이프로, 인포시스 및 타타 컨설팅과 같은 IT 기업은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H-1B 수요가 가장 많은 기업이며, 인도에 본사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H-1B비자의 대다



작년 매사추세츠에서 H-1B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41,182명으로, 미 전국에서 H-1B비자를 9번째로 많이 취득한 주로 나타났다

수는 인도인이 취득하고 있다. 작년 H-1B비자를 취득한 인도인은 12만 7천여 명으로 2위인 중국 (21,657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다. 이는 3위 부터 5위까지인 멕시코(2,540명), 한국인(2,377명), 영국(1,769명)을 합친 수보다 많다.

H-1B 프로그램의 비평가들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부용역까지 써가며 H-1B 비자를 악용한다고 말한다. 롬하 하워드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

는 “기업이 더 싼 노동자에 대한 욕구에 광배해 있다” 고 지적했지만, 기업가들은 숙련된 미국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매사추세츠 하이테크 공청회의 크리스 앤더슨 의장은 “트럼프 정권의 새법안이 호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며 우려하면서 “오히려 미국정부가 비자의 최대한도를 적어도 25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l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SAT Plus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JULY 10 - JUL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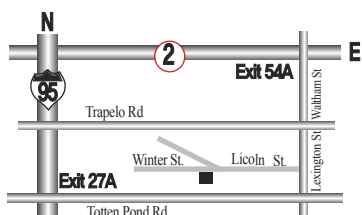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현대 자동차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보스톤 특허 로펌 '민츠 레빈'이 현대측 대리인으로 참여 승소 이끌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납품한 SL 코퍼레이션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는 자동통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3월 15일 승소했다.

현대자동차와 SL 코퍼레이션의 변호를 담당했던 보스톤 소재 특허법률회사 민츠레빈이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은 AHT(Adaptive Headlamp Technologies)의 주장을 무효로 하고 현대자동차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회사 민츠레빈의 변호팀은 5명 중에는 한국인 특허변호사 김공식 변호사가 참가했다.

AHT(Adaptive Headlamp Technologies)는 지난 2015년 7월 1일 델라웨어 소재 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등 다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헤드라이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HT는 현대자동차 등의 헤드라이트 기술이 AHT의 특허가 청구하고 있는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자동



법률회사민츠레빈의 변호팀은 5명 중에는 한국인 특허변호사 김공식 변호사가 참가했다

차사들은 AHT와 합의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현대자동차와 헤드라이트 납품사인 SL 코퍼레이션은 보스톤 소재 민츠레빈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의 소송이 자동 정지되도록 했다. 도요타 자동차와 납품사 고이토사도 합의 대신 무효소송을 선택했다.

미특허심판원은 3월 15일 당사자계 특허무효 심판(Inter Partes Review)에서 AHT사의 특허 이전 선행 기술들을 조합하면 AHT사의 헤드라이트 특허 기술과 유사하지 않다고 현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도요타도 같이 승

소했다. 보스톤 로펌 민츠레빈의 김공식 변호사는 “아직 AHT사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만약 항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번 무효 판결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도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고 밝혔다.

이번 특허소송에 참여한 로펌 민츠레빈의 변호사팀은 김공식 변호사를 포함해 피터 쿼모(Peter J. Cuomo), 애덤 새먼스키(Adam P. Samansky) 그리고 서지 수바흐(Serge Subach) 변호사가 맡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뉴스타 JBL 부동산 비전 컨퍼런스 개최

통영 스탠포드 호텔&콘도 투자멤버 모집 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뉴스타 JBL 부동산은 3월 25일 토요일 뉴튼 소재 보스톤 뉴스타 JBL 부동산 사무실에서 뉴스타 부동산 남문기 회장을 초청해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남문기 회장은 이날 자신이 \$300로 도미해 미주 최대 한인부동산인 뉴스타 부동산을 일구기까지의 성공담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보스톤 뉴스타 JBL부동산은 강연회 후 통영 스탠포드 호텔&콘도 투자 멤버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강연회 식사, 투자설명회 및 질의응답, 보스톤 부동산 시장 근황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보스톤 뉴스타 JBL부동산 이재봉

대표는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많은 한국인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보스톤 한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기업정신을 가지고 하는 행사” 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미나, 지역별 부동산 현황 소개 및 투자안내, 부동산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 교민들과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4:30~7:30
장소: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보스톤 뉴스타 JBL 부동산 사무실)

순서: 강연 (70분), 식사 (50분), 설명회 및 질의응답(50분), 보스톤 부동산 시장 근황보고 (10분)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홍삼정 30g
천녹삼 30g
무료선물

정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420 (180g X 2병) \$70 상당 선물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혈액순환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바이올린 김현정, 첼로 권현지 두 솔리스트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주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화음 오케스트라 5주년 음악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화음보스톤 오케스트라의 창단 5주년을 축하하는 '브람스의 밤' 음악회가 3월 18일 텃스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그라노프뮤직센터의 300석을 꽉 채운 한미관객들은 첫 곡인 화려한 색채의 베버 서곡에 환호했고 더블 콘체르토 바이올린 김현정, 첼로 권현지 두 솔리스트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주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2부의 브람스의 마지막 심포니 No.4가 45명의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로 울려 퍼질 때 호른과 관악기의 풍성한 음색과 함께 깊고 심오한 브람스의 음악 세계가 펼쳐졌다. 기립 커튼콜이 계속 이어지자 오케스트라는 엘가의 세레나데 앵콜곡으로 보답했다.

5년간 화음보스톤 오케스트라의 음

악감독 및 지휘자로서 이끌어온 박진욱 음악감독은 공연 직전 5년전 창단하며 현악기들로 연주했던 곡을 오늘날 전체 오케스트라로 연주한다며 화음 오케스트라의 큰 성장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장수인 단장은 지난 5년간의 열렬한 성원과 화음오케스트라의 발전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앞으로의 5년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관객들은 "이처럼 수준높은 음악회가 한미 사회의 문화발전에 큰 기여가 되어 자랑스럽다고 호평했고 연주자들과 관객들, 지인들이 함께 리셉션을 가졌다.

화음보스톤오케스트라는 6월 3,4일 한국 속리산 나인벨리뮤직페스티벌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 봄 연주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톤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배규, 성악가 박지은, 바이올리니스트 권소영 씨등이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을 창단하고 봄 연주회를 3월 30일 목요일 밤 7시 서저스 소재 이스트서저스유나이티드메소디스트처처에서 개최한다.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은 이날 연주회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등 다양한 작품들을 앙상블로 선보인다. 입장료는 글로벌미션프로젝트에 \$10을 기부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일시: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East Saugus United Methodist Church (85

Chestnut St., Saugus)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은 이날 연주회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등 다양한 작품들을 앙상블로 선보인다

4월의 첼로 피아노 앙상블 '허 베토벤 히이스 첼리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피아노 첼로 앙상블 연주회가 4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렉싱턴 소재 행콕 유나이티드처처에서 'Herr Beethoven & His Cellists'란 제목으로 개최된다.

첼리스트 체리 김, 스칸 토마스 레서 그리고 피아니스트 아이추씨가 함께 연주하는 이번 봄 연주회는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베토벤 소나타 2,3,4번을 연주한다.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베토벤 소나타는 베토벤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 명의 첼리스트 듀포트,

롬버그, 크레프트가 베토벤이 소나타를 작곡할 당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들이다.

세 명의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베토벤 소나타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입장료는 일반이 \$15, 학생 및 시니어는 \$10이다.

일시: 4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Hancock United Church for Christ (1912 Mass Ave., Lexington)

bostonkorean@hotmail.com



첼리스트 체리 김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사사은회 열고 교사들 격려

우수교사 5명과 장기근속 교사 14명에게 표창장
한문수 교수 “동해가 품고 있는 섬 독도”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는 18일 월덱소재 하버드메디칼센터에서 교사사은회 및 연수회를 개최, 2세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학교 협의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각 학교에서 추천된 우수교사 5명과 장기근속 교사 14명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우수교사 표창을 받은 교사는 권인호(천주교), 강민희(에머스트), 김연주(푸르미), 박현아(뉴잉글랜드),

김지연(뉴잉글랜드)교사 5명이다. 특히 이날 수상을 받은 교사중에는 암투병중에도 한번도 수업을 거르지 않고 교육하는 투혼을 보인 교사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곽서영(보스톤), 김경태(뉴잉글랜드), 김희현(뉴잉글랜드), 최연식(퀸지) 교사 4명은 10년 장기근속 표창을 수상했다. 마이클, 김희수, 김희진, 이정숙, 서효순, 김연주, 조금희, 이정설, 이승현, 김경선, 김진아 교사는 5년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이 날 우수교사와 장기근속교사에게 수여한 상금은 한순용회장, 장인숙 직전이사장, 함혜란 이사, 윤미자 직전 회장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교사 선물은 한국학교 협의회 NE-챗터, 명정호 이사가 후원하였다.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한순용 회장은 수상받은 교사들에게 정말 소중한 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또 “지난 4년간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많은 한국학교를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행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준 회원학교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한다” 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회장은 협의회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이 사장으로 힘쓴 박신영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으며, 지난 임기 동안 부이사장으로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명정호 부이사장과 지난 4년 또는 2년간 임원으로써 많은 도움을 준, 신영옥 부회장, 김현주 부회장, 이정숙 홍보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엄성준 보스턴총영사는 한순용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참석한 뉴잉글랜드 모든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가장 멀리에서 온 버몬트 푸르미 한국

▶▶관련 사진 8면에 이어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는 교사사은회 및 연수회를 개최, 교육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 사은회에서 장기근속 수상 교사들과 우수교사수상 교사들 그리고 협회 임원진, 내외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문화 학교, 메인 한국학교, 에머스트 한국학교의 교장들에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한인 어린이, 청소년 들이 한글학교를 통해 성장하여, 앞으로 미국과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 전하였다.

“동해가 품고의 있는 독도”란 주제로 열린 교사연수회에서는 한문수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한교수는 일본인 등이 독도가 한국땅이란 근거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적 자료를 설

명했다. 이날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에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교장, 교사 및 교육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내외와 이광석 교육영사, 한선우 민주평통보스턴협의회장, 김병국 한미예술인협의회회장 등 내외의 귀빈들도 함께 참여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특별공연에는 버몬트 푸르미 한국 문화학교의 “소리모리” 팀이 국악을 공연해 갈채를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수상자 명단

장기근속 (12)

보스톤 한국학교	마이클	15
보스톤 한국학교	곽서영	10
보스톤 한국학교	김희수	5
보스톤 한국학교	김희진	5
퀸지 한국학교	최연식	10
퀸지 한국학교	이정숙	5
우스터 한국학교	서효순	5 (6)
푸르미 한국문화학교	김연주	5
성요한 한국학교	조금희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정설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승현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경선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진아	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경태	10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희현	10

우수교사 (5)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권인호
에머스트 한국학교	강민희
푸르미 한국 문화 학교	김연주
성요한 한국학교	김명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박현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지연

공로상 (1)

박신영

감사패 (4)

신영옥 김현주 이정숙 명정호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첨단 스마트 제품 디자이너 노승혁 눈에 띄네

▶▶1면에 이어서

감사하고 싶어요” 고 밝혔다.

중학교는 영국의 시골 사립학교를 다녔지만 비싼 학비에 결국 오하이오로 옮겼다. 이후 미네소타를 거쳐 명문 디자인 학교인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처럼 학업을 위해 여러 도시를 전전해야 했기에 그는 늘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어야 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문제없이 사귀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운동이었다. 말은 못해도 몸으로 부딪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다. 지금도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살고 있지만 매 주말이면 보스톤한인야구리그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 보스톤을 방문한다.

이정도 해외생활이면 보통 병역기피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군대를 마쳤다. 훈련소 시절 시간이 날 때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은 게 무려 83가지였다. TV에 출연하기, 국가대표가 되기,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이뤘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 재학중인 2012년 산호세에 위치한 삼성전자 R&D Lab에서 인턴 디자이너로 대기업 생활을 경험했다. 또한 민첩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작은 디자인 회사 로프트에서도 일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그래픽 디자인 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제품 디자인에 더 재능과 관심이 있으며 로프트가 훨씬 적성에 맞아 로프트사의 첫 정직원인 됐다.

로프트는 보스톤에 위치한 알티튜드(Altitude) 디자인사의 전 디자인 총괄 고레고 미터싱커(Gregor Mittersink)와 15년 이상의 디자인 프리랜스 경력을 가진 제넷 넘버스(Jeanette Numbers)가 합쳐 시작된 회사다. 이들은 세그웨이, 롤러블레이드, 피셔프라이스, 크로스(Cross), 하스보로 등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특허품을 창출해온 바 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스케치를 하곤 했는데, 지난 4년 동안에 3번이나 이사를 하고 회사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뿌듯해요. 아직 같 같이 멀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작업한 게 다 추억이고 회사에 보탬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로프트는 프로비던스 본사와 시애틀 지사를 포함하여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패키징, 브랜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웹디자인 등 많은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노씨는 수석디자이너로서 영국, 중국,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있다

노씨는 하루에 약 5개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한 프로젝트의 제품 디자인을 제품사 엔지니어 등과 협의해 최종 주물을 만들 때까지 일한다. 주물을 하나 뜨는 데만 최소 4만불이 들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 외관 그리고 내부의 각종 회로배치까지 극도의 미세한 조각들을 조합해 디자인을 완성한다. “마치 퍼즐을 푸는 창조작업과 같다” 는 것이 노씨의 이야기다. 주물이 원하는 만큼 나오고 고객이 이를 승인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매달린다.

그가 디자인한 제품은 여러 가지다. 3년전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한 휴대용 프린터 ‘라이프프린트(Lifeprint)’ 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자인 행사중 하나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16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어 전세계의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해에는 베스트바이와 타겟에서도 출시된다.

MIT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알레르기 탐지기 “앨러지 아물렛(Allergy Amulet)” 도 그가 디자인한 제품이다. 알레르기 질환이 심한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먹기 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탐지기다. 금연을 위한 스마트 라이터 ‘퀵비트(Quitbit)’ 컴퓨터, 테블릿, 핸드폰에서 찍는 사진들을 무선으로 저장해주는 개인 백업 디스크 ‘레비홈(Lyve Home)’, 손목시계 아래에 부착하여 어떤 손목시계도 스마트워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크로노스 피트니스(Chronos Fitness)’ 등 그가 디자인한 많은 제품들이 뉴욕타임즈, NBC뉴스등의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고객의 제품을 디자인해주는 것 외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다. 로프트사 전 직원이 시간을 쪼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마리화나 재배 앱(APP)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재배가 허용되므로 누구나 경험이 없어도 어떻게 재배하고 언제 수확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많은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싶고,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 생각” 이라고 노씨는 밝혔다. 가까운 장래에는 MIT에서 엔지니어링 쪽을 공부하고 싶어한다.

디자인컨설팅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가구도 만들어볼 생각이다. 가구 업은 인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런 개인 작업을 할 때 정말 평화로웠던 기억이 있다. “나무는 숨을 쉬는 재료다. 때로는 불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며 휘기도 한다. 그래서 극도로 어려운 재료지만 마음이 편해진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요” 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작품을 모아 개인전도 열고 싶다는 것이 장래 포부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자산보호, 불려진 방법, 재무 조정
신용회수 분쟁 및 조정
고용사고 상해, 학업면
법정 사업체 등록, 증권, E-Visa, T-Visa
부동산(매각)리스 PM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자산보호신원외국인에 드리는 기본 서비스

주거비밀금고 및 리프트
리프트 리포지셔닝 서비스(1년)

세무조정, 유산계획, 상속재산분할, 자질 및 상속의 유무, 조세, 영문수 및 영문서 작성
*Call Us Today! We Speak Korean, Mandarin and English.

장우석 변호사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3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 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이 미 전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10위에 올랐다

보스톤, 미국에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10위

매물 적고 수요 많아 판매자에게 가격 조정 유리한 도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IT 산업, 젊은이 수요 공통분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이 미 전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기업 질로우스 (Zillow)의 발표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주택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부동산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로 나타났다. 그 뒤를 산호세, 덴버, 시애틀, 세크라멘토등이 뒤를 이었으며 보스톤은 10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구매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은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마이애미였고 그 뒤를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이 뒤를 이었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라 함은 수요자가 판매자보다 많아 판매자에게 유리한 가격조정이 이루어 지는 시장이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은 장기간 판매 리스트에 올라온 매물이 많아 가격조정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은 보스톤을 제외하면 주로 서부에 많이 위치했다. 1위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6~10위권 순위에서도 샬롯과 보

스톤을 제외하면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서부권 도시들이 위치했다. 순위권의 도시들은 주로 IT가 발달해있고 젊은이들의 수요가 많은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반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지역은 1위를 차지한 볼티모어를 비롯해 인디애나폴리스(6위), 탐파 (8위), 올란드(9위) 워싱턴 DC(10위)등이 대거 포진해있는 중동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들이 동부 해안도시에서 많이 거주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질로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베냐 구델(Svenja Gudell) 박사는 조사발표를 통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렌트하여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며 “특히, 산호세, 샌디에이고, 시애틀과 같이 구매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과 적은 매물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사진으로 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사사은회



교사들의 노고와 한국학교협의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는 엄성준 총영사



교사사은회에서 우수교사 표창을 수상한 교사들이 꽃과 상패를 들고 있다



축하 공연을 하고 있는 푸르미 한국학교 풍물놀이팀



한국학교 1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한 교사들과 한순용 회장, 엄성준 총영사, 윤미자 직전회장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한국학교협의회 윤미자 직전회장, 한순용 현 회장, 신영옥 부회장, 김현주 부회장, 김지애 총무, 이정옥 홍보간사(앞에서부터 뒤로)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핵심적인 기술로써 다자간비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한 전문 학교입니다.

전문 수강생 특별할인 가격 (※ 5월 31일)

“성업 중엔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Blessing
Channels**
Nail Academy

MA Best Nail School
5월 31일 전
> 저렴한 Tuition
> MA주 다 레인지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herine.com

78 Millis Ave. #103, Norwood, MA 01901
bena76@gmail.com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그 이름은 "포미족"

자기만족 소비하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젊은 세대
20대 가성비, 외모관리, 3~40대 장난감 주 이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대학생 윌리엄씨는 작년부터 시작한 카메라에 푹 빠져있다. 학생 신분엔 본체는 1,000달러가 넘고 렌즈와 기타 장비까지 구입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 학생 신분으로서 쉽지 않은 취미다. 하지만 윌리엄씨는 “자신의 만족스런 취미생활을 위해 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윌리엄씨처럼 자신만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성향의 소비자들은 이른바 ‘포미(FORME)족’으로 불린다. 포미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

ient), 고가(Expensive)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상품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뜻한다.

한국의 포미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관에 둔 소비성향이다. 포미족이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과소비와는 거리가 있다. 과거의 자기만족 소비가 자기 과시적 성향이 짙었던 것과는 달리 포미족의 소비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써 자기보상심리에 성향이 강하다. 구매력이 있는 30대들은 구매에 있어서 과감한 소비경향을 보였지만, 젊은 20대 세대들은 구매에 있어서도 저렴한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소비가 주로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포미족들은 특히 외모에 투

자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2015년 20대의 한국남녀를 399명을 대상으로 ‘나를 위한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다. 나를 위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의류(27.8%), 전자제품(27.2%)을 주로 꼽았고 여성은 화장품(40.3%), 의류(38.1%)를 많이 꼽았다. 선호하는 의류브랜드로는 유니클로, 화장품은 이니스프리와 같은 중저가의 효용성이 높은 이른바 “가성비 값”인 제품이 인기를 모았다. 이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쓰는 돈의 평균 비율은 37.4%로 이들의 한달평균 생활비가 49만3천원으로 조사된 것을 계산하면 이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쓰는 돈은 약 18만4천원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와 반면 3~40대의 포미족들은 키덜트(Kidult)적인 성격이 강했다. 아이(Kid)와 성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족들은 고가의 정밀한 피규어나 프라모델과 같은 장난감에서 높은 구매력을 보였다.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2015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레고를 구입한 사람은 37.9%, 캐릭터 장난감이나 인형, 피규어를 구입한 비율도 각각 28.8%와 27.4%,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통계에 의하면 키덜트 상품 구입의 주요 연령층은 30대(35.8%)와 40대(38.5%)인 것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하는 포미(FORME)족들이 최근의 경향으로서 20대부터 40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자료에서는 2015년 1사분기 드론 구매자의 41%는 40대 남성이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살 수 없었던 장난감에 대한 동경, 마음의 치유 등의 이유로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계에는 배우 심형탁(39)이 도라에몽 상품을 열혈적으로 모으며 ‘심타쿠’라는 별명을 얻었고, 가수 김지숙(26, 전 레인보우)도 걸그룹 멤버보다 컴퓨터와 게임기기 마니아로 더 큰 명성을 얻은 바 있다.

본인도 포미족이라고 밝힌 유학생 김지에 씨는 “어차피 돈을 안 쓸 수는 없다”면서 “기왕 쓰는 돈이라면 자신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

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써 가급적 아낄수 있는 돈은 아끼면서 남은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면 팔요한 물건도 사고 스트레스도 풀려 일석이조”라고 답했다.

또 다른 유학생 김재호 씨도 “전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오히려 쓰지 않고 버리는 물건이 많아졌다”면서, “요즘은 오히려 많이 쓰지 않는 물건은 적게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해 젊은 세대의 달라진 소비습관을 엿볼 수 있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도라에몽을 너무 좋아해 심타쿠(심 씨+오타쿠)라는 별명이 붙은 배우 심형탁 씨와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가수 김지숙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포미족이다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1회 \$100)

3/29(수), 4/1(토)
소고기 미역국: 32oz 2통
고추장 참치찌개: 32oz 2통
버섯불고기: 24oz 1통
배추김치: 16oz 1통
비빔밥 나물:
- 골고루 나누어서 24oz 2통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무생채, 표고버섯, 청포묵)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요리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날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아마존 1시간 배달 서비스 보스톤에서도 시작

'프라임 나우' 서비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문하면 한 두시간 내에 물건을 배달하는 아마존 서비스가 보스톤에서도 22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아마존은 22일 한 시간내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 아마존나우(Amazon Now)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라임 나우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에게 주문한 물품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1시간 내 배달은 \$7.99의 배달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2시간내 배달은 무료이다.

2015년 아마존은 보스톤 일부 지역에 무료 당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일 년 후 아마존은 락스베리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당일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러나 흑인 밀집지역 기피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락스베리도 서비스를 허용했다.

프라임 나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스톤, 서버빌, 케임브리지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나우 서비스는 2014

년 뉴욕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그 서비스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식품, 가정용품, 전자제품, 화장품, 그리고 애완동물용품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최소 \$20이상을 주문해야 가능하며 주간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프라임나우 서비스를 이용해본 정현우 씨는 "프라임나우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식료품과 과일, 야채 등이며 나머지 상품들은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 2015년 1시간 배달 서비스를 위한 에버렛에 장소를 임대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아마존 서비스가 보스톤에서도 22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화당 건보안, 매사추세츠 지원 최소 10억달러 삭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의 건강보험안이 2020년 부터는 매사추세츠 연방지원 금액중 10억달러 이상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1일 매사추세츠의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공화당 건보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안은 주전체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을 점차로 고갈시키게 된다"고 주지사는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2020년에 부족한 금액은 10억달러이지만 2021년에는 13억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 같은 추산은 의회예산국(CBO)가 3월 13일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 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향후 매사추세츠주 예산에 더욱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의 우려가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새로운 건강보험안을 23일 하원 전체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22일 나이든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법안의 수정을 가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수정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건보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바마케어 라이트'라며 건보안 지지를 거부하고 있는 극보수 성향 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트럼프가 지난주 밝힌 예산 청사진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예산안은 과학 연구 분야 자금을 10억달러 삭감하고 클린에너지, 교육, 그리고 소셜서비스 프로그램의 대폭적 예산 삭감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교육, 첨단 에너지 산업 등에 앞서있는 매사추세츠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 617.505.6771 |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42 | 617.572.8888 | SeoulFoodMarket.com

마이클 리 모기지

Mortgage

North Commercial Group, Inc. 1986.2 (F)1427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0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8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rac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6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FBI, 트럼프 꼬리 잡았나... 러와 힐러리 음해 정황 포착

아직은 '정황 증거'... "힐러리 유출에 격려한듯" 가짜뉴스보다 '이메일 해킹' 협력 수사에 무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보원들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음해 공작을 협력했을 수 있다는 정황 증거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클린턴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보다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된 '이메일 유출'이 조사 중심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22일 CNN방송에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FBI가 휴먼트·출입국정보·업무통화기록·대면회의록 등을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FBI 방첩부대 수사관들이 트럼프-러시아 협력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입수된 정보에 대한 해석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선캠프에 연관된 사람들이 (러시아와) 소통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힐러리에 치명적인) 정보 유출이 준비되자 이를 격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는 정황적 증거만이 있을 뿐이며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FBI

의 러시아-트럼프캠프 유착설 수사 사실을 확인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지난 20일 폭탄 발표가 이 정보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미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FBI가 "부정행위에 관한 신뢰성 있는 주장 또는 미국민이 외국 정부의 공작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트럼프 캠프 소속원과 러시아 공작원 사이 유착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등 클린턴 후보와 연관된 단체나 개인의 전산망에서 빼낸 이메일들을 지

난해 7월부터 유출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적대적인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저해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 정보기관들은 힐러리 후보에 관한 '가짜뉴스' 생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부분은 FBI 수사망에서 빗겨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메일 유출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버해킹보다 심각성이 더욱 큰 FBI의 방첩부대에서 수사 중이다.

FBI는 이미 트럼프 대선캠프 관계자 4명을 러시아 내통 혐의로 조사 중이다. 마이클 폴린, 폴 매너포트, 로저 스톤, 카터 페이지 등이다. 이들이 힐러리 유출과 관련한 이번 수사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icef08@news1.kr



2016년도 미국 대선후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그린 러시아 전통인형

트럼프 장남, 테러 당한 런던시장 조롱해 '몰의'

트위터로 "테러가 대도시 삶의 일부?" 비난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2일 런던 의회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도보에 차량이 돌진해 4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테러와 관련해 런던 시장을 조롱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러 공격은 대도시에서의 삶 속의 일부라고 사디드 칸 런던 시장이 말했다. 놀리는 건가"라 말하면서 지난해 9월 칸 시장이 인디펜던트와 가진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었다. 신문 기사에서 칸 시장은 맨해튼 폭탄 테러 등을 언급한 뒤 "테러 공격은 대도시에서의 삶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칸 시장은 "테러 공격에 대한 준비는 대도시에서 삶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언급한 시점도 지난 9월로 약 6개월 전에 테러 공격 준비를 언급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칸 시장은 최초의 무슬림 런던 시장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특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무식한'(ignorant)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그를 국빈 초대하기로 했지만 영국에서는 트럼프의 방문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면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런던 경찰은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친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스카이스터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사건과 관련해 메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우리는 오늘 발생한 웨스트민스터 테러 공격을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s914@news1.kr



사디드 칸 런던 시장



MR. SUSHI ARLINGTON



781.643.4175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BUSINESS HOURS

Monday	11:30AM - 10:00PM
Tuesday	11:30AM - 10:00PM
Wednesday	11:30AM - 10:00PM
Thursday	11:30AM - 10:00PM
Friday	11:30AM - 10:00PM
Saturday	11:30AM - 10:00PM
Sunday	11:30AM - 09:30PM

SINCE 1987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및 한식

지금 경험하세요!

Catering 주문 환영

TD Garden (Celtics & Bruins Game VIP 일식 담당)
The Colonnade Boston Hotel,
Winchester Country Club 일식 출장 연회 다수 경험



구글 사과에도 광고 보이콧 확산... AT&T도 동참

반발 기업 중 최대... "검색외 광고 전면중단"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혐오 발언 영상이나 극단주의자의 유튜브 영상에 정부·기업 광고를 붙여 못매를 맞은 구글 디지털 광고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구글의 공식 사과와 쇠신안 발표에도 미국 통신사 AT&T가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AT&T는 22일 검색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구글 광고를 일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와 구글 광고망 내 200만개 이상의 제3자 웹사이트에서 진행중인 모든 광고에 대한 철수를 의미한다.

구글 측은 AT&T의 광고 중단 조

치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광고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했고 광고주들에게 어떤 영상에 광고가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또한 광고주 브랜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T&T는 구글에 대한 광고 보이콧을 선언한 기업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HSBC 은행과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그룹(RBC), 로레알, 폭스바

겐 그룹의 아우디가 구글에 대한 광고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구글의 최고사업책임자(CBO)인 필립 쉰들러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혐오적인 영상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며 각종 쇠신방침을 발표했다.

baebae@news1.kr



애플 '빨간' 아이폰7 24일 시판... 값 내린 아이패드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애플이 21일 빨간색 아이폰7, 7플러스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한 9.7인치 새 아이패드(iPAD)도 함께 출시했다.

한정판 아이폰7 '레드'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애플의 '프로덕트 레드(RED)' 캠페인의 일환이다. 캠페인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에이즈 연구 및 예방 단체 '레드'에 기부된다. 애플은 각 제품의 빨간색 버전 출시를 통한 레드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1억 30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한정판 아이폰7 '레드'의 가격은 749달러부터 시작하며 오는 24일 미국 내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새 아이패드 태블릿은 일년전 출시한 기존 아이패드 프로 모델보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한층 더 밝아지는 등 성능이 개선됐다. 그러나 가격은 329달러부터 시작한다. 아이패드 프로는 599달러부터 시작한 바 있다.

애플은 이날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클립(Clips)도 함께 발표했다. 클립은 동영상과 사진, 음악을 합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필터와 이모티콘을 적용할 수도 있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도 갖췄다.

애플은 "클립은 인스타그램, 스냅챗, 구글 포토나 뮤지컬리(Musical.ly) 앱의 인기요인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립은 내달 중 iOS10.3에서 이용할 수 있다.

baebae@news1.kr



美대표 백화점 체인 시어스 "기업 존속 가능성 희박" 통고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131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 백화점 체인 '시어스'(Sears)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시어스 백화점의 모기업인 '시어스 홀딩스'(Sears Holdings)는 22일 배포한 연례보고서에서 "장기 경영실적을 종합해볼 때 기업 존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어스의 부채 규모는 현재 42억 달러(약 4조7천억 원)로, 1년 새 12억 달러나 더 늘어났다.

시어스 최고경영진은 "빛을 내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현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시어스 측은 "경쟁적 시장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며 "유동성을 창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분명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1886년 시카고에서 우편주문판매업체로 처음 시작된 시어스는 1925년 첫 매장을 열었고, 1969년 3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규모 소매기업으로 성장했다.

시어스는 1974년 시카고에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이름을 올린 '시어스타워'(108층·442m·현 윌리스 타워)를 세우고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1989년 '월마트'에 최대 소매기업 자리를 내주었고, 2005년 대형 유통업체 K마트에 인수 합병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어스가 수년 전부터 실적 부진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했으나 이로 인해 외려 이종교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어스 백화점과 K마트를 소유한 '시어스 홀딩스'는 지난해 22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2% 줄어든 221억 달러였다.

시어스 홀딩스는 지난달 "연간 운영비용을 10억 달러 삭감하는 '전략적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어스 백화점과 K마트 매장 150개를 추가 폐쇄하고, 공구 제조업체 '크래프트맨'(Craftsman)을 '스탠리블랙앤데커'(Stanley Black & Decker)에 9억 달러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에드워드 램퍼트 시어스 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수익성 향상을 지향하고, 좀 더 기민하고 경쟁력 있는 소매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6주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램퍼트는 자신이 설립한 'ESL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시어스 홀딩스에 10억 달러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chicagorho@yna.co.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리칭 프로
 aj.usgtr@gmail.com

857.600.6755

Looking for Nail, Esthetician and Massage Technician

COCO NAIL & SPA TEL: 617.969.0406
 1175 Walnut St. Newton, MA 02461

PLUSH NAIL & SPA TEL: 617.244.6700
 80 Langley Rd. Newton, MA 02459

WE DO | NAIL, WAXING, FACIAL, MASSAGE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HAPPY HAPPY DOLLS

어린이 선물상자
 Happy Dolls
 문의 617.248.3131 Happydollsgift.com

세월호 본체 인양 시작...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이제서야"

"차 전 대통령 탄핵 되고 일사천리... 분노 감출 수 없어"

(서울=뉴스1) 권혜정, 정재민 기자 = 수학여행을 떠나던 고등학생을 태운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으로 잠긴 지 1072일 만인 22일 저녁, 세월호 본체 인양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긴 밤을 지낸 서울 광화문광장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9시,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참사를 위한 수요미사 등에 참석하고 집으로 향하는 시민 몇명 만이 자리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모인 광화문광장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박지혜씨(35·여)는 "세월호가 온전한 상태로 인양에 성공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빠르게 인양이 진행되는 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은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

호 참사 미사에 참석한 김현욱씨(30)도 "빨리 인양이 되어서 세월호 안에 우리가 기다리던 9명의 실종자를 만나고 싶다"며 "그토록 원하던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는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못했던 것인지, 탄핵이 되고서야 일사천리로 인양이 진행되는 것인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정모씨(30)는 "아이들의 시신, 유품 등을 수습해 가족 품에 꼭 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그게 아이들을 바다에 묻은 어른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한 대학생 김세연씨(22·여)는 "세월호 인양 소식을 듣고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바로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더라면 지금쯤 대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MT

도 가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인양이 성공해서 아이들의 흔적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양작업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염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회사원 이가연씨(32·여)는 "물론 한시라도 급한 건 알지만 인양작업 중에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유가족들도 대부분 진도로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몸 건강히 조심히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은이 아빠로 알려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4년 4월 16일에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서둘러 나섰던 그 길을 아홉분 미수습자들을 데려오려고 다시 갑니다. 두렵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떠나고 차가운 분향소 예은이 앞에 섰습니다. 제발 오늘은 세월호를 인양하게 해달라고 염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과도는 잔잔하

고 바람은 멈추고 오로지 간절한 바람만을 그바다가 가져가 아직 오지 못한 아이들을 들어 올려주길", "오늘은 하늘도 좋고 바다도 잠잠해서 이제 아이들을 꼭 데려오길 빈다"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를 시청하던 성재현씨(55)는 "한동안 아이들을 잊고 있었던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가족들의 눈에 이제 더는 눈물이 흐르

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인양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며 "뒤늦은 작업이지만 가족들과 국민이 바라는 만큼 미수습자 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50분 세월호 본인양을 결정했다. 오전 10시에 시험 인양에 들어간 지 10시간 50분 만이다.

jung9079@news1.kr



22일 오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재강바지선 등 선박들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양 현장은 세월호 인양을 위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전·후 냉기습만...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다"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하면서 SNS에 올린 한 유가족의 글이 미수습자(9명) 가족과 유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빨리 인양할거면서 왜 그리 긴 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까. 너무 허무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고 유예은양 아버지인 유 위원장은 "수면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라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있을까요. 미수습자 9명 모두 무탈하기를 바랍니다"고 기원했다.

3년여 시간을 기다려온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19일 오전 예정된 세월호 시험 인양 작업이 전격 연기되면서 냉기습을 쓸어내려야 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벽 6시에 세월호

선체를 1m 가량 들어 올리는 시험 인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문제가 없다면 본 인양 여부까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20~22일 기상여건 변동과 최종 점검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3월 22일 이후 기상 여건을 보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지 1073일 만인 23일 새벽 4시 47분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미수습 가족이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2일 저녁 8시 50분부터 본 인양에 들어간 지 7시간 30분 만이다.

jihjip@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서울떡볶이는 정통 분식전문점입니다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617.787.5656



You work hard for your money.

We can help you keep more of it.

With every new FREE checking account you'll receive big conveniences and big savings including:

- Mobile Banking with Check Deposit
- Access to Allpoint® ATMs
- Online Banking and Bill Pay
- Instant issue ATM/VISA® check card
- e-Statements
- Your choice of a FREE Gift

Please come by today to open your Simply Free Checking account with Gina and meet Tatiana to see how we can serve you.



181 Brighton Avenue, Allston
800.657.3272 ebsb.com

Minimum deposit of \$50 is required at account opening. Customer purchases checks. We reserve the right to substitute a gift of a similar value, while supplies last. Please note in the event the value of the free gift exceeds \$10, the bank is required to report the gift value on form 1099-BIT or 1099-DIVC. The recipient is responsible for all applicable taxes. We'll pay you up to \$15 for your unused checks and check card from another financial institution. Offer may change at the discretion of the bank at any time.



숨죽인 세월호 인양작업 48시간... 목표 13m까지 1m 남아

(진도=뉴스1) 전원 기자 = 세월호가 시범인양이 이뤄진 뒤 48시간동안 간섭현상과 선체 일부 절단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였던 수면 위 13m 인양에 1m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소조기 내인 24일 밤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실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전 6시45분께 선미램프 제거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제거작업과 함께 세월호 인양작업도 함께 병행해 수면 위 12m까지 부상시켜 수면 위 목표까지 1m만 남겨 놓았다.

이대로라면 오전 중 인양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세월호는 소조기 내인 24일 밤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시범인양에 돌입, 오후 3시30분께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1m 인양됐다. 이후 선체 균형잡기에 성공하면서 같은날 오후 8시50분께 본인양에 들어갔다.

밤샘 작업을 벌인 끝에 세월호는 1073일 만인 23일 오후 3시45분께 스태빌라이저가 보이기 시작했고 오후 4시 47분께에는 선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양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10시께 선체의 자세가 변동됨에 따라 재킹바지선 와이어나 세월호 선체간 '간섭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인양을 잠시 멈추고 세월호 선체와 재킹바지선에 1차 고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재킹바지선

과 선박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인양 지장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였다.

세월호는 23일 2시께 1차 고박작업을 후 세월호 선체 자세를 조정해 인양을 진행했다. 이후 5시 수면 위 8.5m까지 인양이 됐다.

하지만 이후 3시간여 동안 난간과 케이블 등 지장물을 제거하면서 인양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에 있는 지장물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인 오후 6시30분께 좌현의 선미 램프(D데크)의 잠금장치 파손으로 램프가 개방돼 있는 난간에 부딪혔다.

해수부는 오후 8시께부터 선미 램프 절단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인양작업도 함께 병행해 오전 6시께 수면 위

12m까지 부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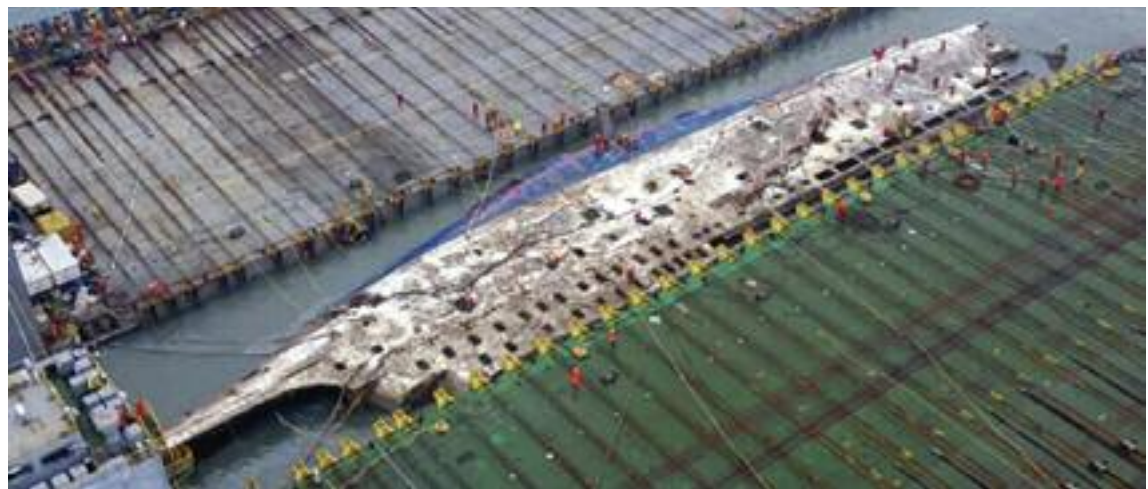
24일 6시45분께 선미 램프 절단작업을 완료하면서 목표에 1m 정도 남게 되면서 수면 위 13m 인양을 완료하고, 반잠수식 선박에 거칠기 소조기 내인 오는 24일 밤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절단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월호 인양작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24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선미램프 제거 작업은 완료됐다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 중인 재킹바지선 사이로 선체 우측면이 모습을 드러내 상하이 셀비지 관계자들이 고박작업을 하고 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 "세월호 바로 세워 참사 원인 밝혀야"

"세월호 침몰원인 영구 미제 되면 안 돼"
김관목 교수 "비용 더 들더라도 선체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073일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인양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았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월X'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네티즌 수사대 '자로'와 '세월X' 제작에 자문 역할을 했던 김관목 이화여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양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자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선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신이 좌현 밑바닥 쪽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눕혀져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로는 "해수부는 실종자 수색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선체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올라오면 절단부터 하려하고 있다"며 "세월호를 세우려면 별도의 예산이 들고 미수습자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관목 교수도 "비용이 더 들고 시설물을 추가로 만들어야겠지만 배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력에 의한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 선체 외부를 조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자로와 김 교수는 원활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선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현재 해수부는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거치 한 뒤 여객 칸을 절단해 미수습자 수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핵심적인 참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복원력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체를 인양한 뒤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찰 수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는 평형수 부족, 고박 불량, 무리한 증축 등의 이유로 급변침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김 교수는 화물량 분석과 계산을 통해 세월호의 복원력이 그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세월호가 변침 뒤 다시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복원력 상실'이 아니었다면 이는 자로와 김 교수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해온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방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로와 김 교수는 인양과 선체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든 일단 그 절차와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될 선체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로는 "모든 국민이 가까이서 이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야 그동안의 의혹이 풀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참사의 원인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세월호 선미 진입로 절단 배경은 '150m 허용범위 넘어' 선적 불가능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세월호 인양에서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다. 선미 진입로가 열려 있어 반잠수선 선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23일 오후 10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면 위 10m까지 들어올린 세월호 인양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월호 좌현의 선미의 진입로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미 진입로는 세월호에 차량이나 트럭을 싣고 내릴 때 쓰는 구조물로 배의 뒤쪽에 설치돼 네 개의 힌지에 의해서 열리고 닫힌다.

해수부가 선미 진입로를 절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약 11m의 선미 진입로가 열려있으면 반잠수선에 선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반잠수선의 옆에서 접근해 선적하는 방법이다.

만약 선미 진입로가 열려있으며 세월호 144.6m에 11m가 더해져 약 150m의 반잠수선 선적허용 길이를 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선미 진입로 개방은 23일 오후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지장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개방 원인은 침몰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거 작업은 23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됐다.

선미 진입로 개방 확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해수부는 해저면에 접해 있을 때는 닫힌 상태여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절단 작업이 내일 아침까지 완료되면 24일 자정까지 반잠수식선박에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모든 장비와 인력 투입해서 오늘 밤에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단 작업이 예측을 벗어난다면 추가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좌현 선미 진입로를 통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양 전에 유실방지망 설치할 계획이다.

bsc9@news1.kr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 23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R. 24 - MAR. 30, 2017

JAPCHAE

This Chef Sohui's Japchae recipe is the easiest way to make Japchae. Also it's vegetarian, gluten-free, of course - delicious! Try it now, crave it later!
H마트가 김소희 셰프와 함께 손쉽게 만드는 잡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잡채요리를 오늘 한번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 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14-16oz **\$0.99**
- Nogaimo 일본마 **\$5.99**
- Israel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79**
- Gobo 우엉 **\$1.99**
- Dragon Fruit 드래곤 프룻 **\$3.99**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3cnt/pkg **\$7.99**
-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1.29**
- Ginger 생강 **\$1.2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Pork Loin for Dishes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 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짬뽕용 **\$11.99**
-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닭 사태 **\$1.99**
- Bone-in Beef Hindshank 뼈있는 아롱사태 **\$4.99**
- Pork CT Butt for Bulgogi 돼지족살 불고기 **\$5.99**
-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4.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밥 15 lbs **\$9.99**
- HAIOREM Dumpling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 2.25 lbs **\$4.99**
-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8 oz **\$14.99**
- HORWEL FOODS Spam 스팸 All Varieties 10oz **2\$5**

2017년 미국 동부지역 통영명품 수산물 특판전

TONGYEONG PREMIUM SEAFOOD SPECIAL SALES

Special SALE

Anchovy / Conger eel / Oyster Crab / Sea squirt / Natural seasoning / Liver

Until Mar. 26th, 2017 at Hmart Burlington Store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62-60's **\$4.99**
- Salted Yellow Croaker 자연 찐조기 5.5 lbs-10oz **\$35.99**
-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2.99**
- Bloody Clam in Half Shell 반코막 **\$3.99**
-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2.99**
-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 활장어 **\$14.99**

- OTTOGI Jin Jambong Ramen 오뚜기 잠룡봉 4.5oz x 7pk **\$3.99**
- SINSONG Red Pepper Paste + Soybean Paste 산송 고추장 + 원장 6.6 lbs + 22.1 oz **\$12.99**
- HOUSE Verrand Curry 하우스 버랜드 커리 8.11oz **2\$5**
-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 당면 1.5 lbs **2\$5**
- HAIORE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 KTOAN NAWON Cooked Seasoned Loach and Abalone Soup 남원 전복 추어탕 15.6oz **\$7.99**
- CJ Bibo Classic Dumplings/ Crispy Potstickers CJ 비보 클래식 만두/궁만두 1.75 x 2 lbs **\$6.99**
- NARUKYO Sweet Shi No Meksaku 마루쿄 아지노 메카사쿠 만주 8.6oz **\$3.99**
- NESTLE Green Tea KitKat 네슬레 녹차 킷캣 4.7oz **\$4.99**
- BOUNTY Paper Towels 바운티 케미프리 타올 1600sq **\$14.99**
- DR. CHUNG'S FOOD Vegemil Soy Milk 경석출 베지밀 두유 All Varieties - 10oz x 24oz box **\$9.99**
- TOEN Drink 미트렌 드링크 2.5oz x 12oz **2\$3**
- Tumble Washable Sponges 담물 워시블/영문니 거품화 6개/트럼블 스폰지 **\$6.99**
- Porron Handle Diving Tray 포론로 핸들 다이빙 식판 16x10x1.5 **\$6.99**
- COOKING LAND Stainless Steel Basket 조리용 스테인레스 양분 바구니 **\$2.4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pecial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pecial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판매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위치는 제한된 가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 판매 상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아닌 상품은 특별 판매 상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모든 H마트 매장은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 버링턴 스토어: 3 Old Country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차신병처리방향 결심?...김수남 단호히 "법과 원칙" 강조

출근길서 첫 언급... 곧 구속여부 밝힐 것 예상
차 혐의부인...檢 혐의 입증할 증거·진술 충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을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처리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김 총장의 작심한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언론을 향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

부는 언제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보통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수사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만큼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21일에도 오후 11시40분까지 청사에 머무르며 박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퇴근하기도 했다. 당일 오전 9시35분에 시작된 조사는 오후 11시40분까지, 총 14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부분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조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법, 또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단답형의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이번 주 후반 결론 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김 총장이 다음 주 초 결론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ho84@news1.kr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에 경의"...차 '황제소환' 논란에 기름 부은 변호인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사를 마친 뒤 미묘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과는 달랐다"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그러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부인' 자세에 심기가 불편하던 대다수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조사받는 과정을 놓고 과잉경호와 과잉의전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변호인단의 발언은 비록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전직이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는 여론인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와 의전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과 범죄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의 과잉 의전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경호,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담당할 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에게 각듯이 대통령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휴식 등을 고려해 조사실 옆에 간이침대 등을 준비해 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이다. 검찰은 21일 이뤄진 피의자 신문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통상 형법학

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우호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에 대해 "늦게까지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선의의 발언 정도로 이해한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자충수'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당수 국민이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 될 것이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jurist@news1.kr



범검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박근혜 구속해야" TK는 반대?

대구·경북 제외한 전 지역서 찬성 의견 높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3%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 중 '매우 찬성'은 60.9%, '찬성하는 편'은 11.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 때(69.4%)보다 구속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진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총 25.1%로 '매우 반대'와 '반대하는 편'이 각각 16.0%, 9.1%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3.7%였다. 파면 직후 조사에선 '불구속수사' '수사 불필요' 응답자의 합계가 27.4%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찬성 87.0%, 반대 11.6%)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 (78.6%, 18.9%), 서울 (75.3%, 23.0%), 대전·충청·세종(71.7%, 25.1%), 부산·경남·울산(71.6%, 26.0%)에서도 찬성 의견이 70%를 넘겼다. 하지만 대구·경북(39.2%, 55.6%)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 대별로는 30대 (89.9%, 8.8%)와 40대(85.3%, 10.5%), 20대 (85.2%, 14.8%)의 구속수사 찬성 비율이 85%를 넘었다. 50대 (66.6%, 31.4%)에서도 구속 찬성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60대 이상 (43.1%, 52.3%)에선 구속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89.0%, 8.6%)과 중도층(81.2%, 16.7%)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보수층 (37.3%, 60.1%)에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kukoo@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isu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shinbok@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4 Bedrm Way Bedford, MA
Fiber, 4.5 Bath, 1,200 sq. Ft. Open house Sat, Sun
Between 12-3pm
Asking **\$1,699,000**



Condo
17 Berkeley Ave. Boston MA 2 Unit.
Boston Center City. 2022 sq. Ft.
Renovated Condo. Great Zoned Garage.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는 최고의 기회
Asking **\$891,000. \$999,000**



상점 & 스파
Boston에 위치
1,200 sq. Ft.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면 위치,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450,000**

LISTINGS

1. Full Price \$9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 Full Price \$7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 Full Price \$6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 Full Price \$5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2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3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4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5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6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7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8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1.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2.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3.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4.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5.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6.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7.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8.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99.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100. \$299,000 1000sq ft, 4bed, 3bath, 2car	SOL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Equip, 양방향 수로
넓은 공간
Asking **\$599,000**



입식당
Beer and wine 포함
Licenses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20,000**



편의점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서비스업합중.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Equip, 양방향 수로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서비스소
보스톤 북부 서비스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전: 978.494.2043

文·安·李 측 '투표결과 유출' 논란 놓고 '공방 격화'

文측 "불가피한 유출...당 선관위서 조치할 것"
安측 "당 입장 분명히"...李측 "공정성 믿겠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경선주자들인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이 23일 '투표결과 유출'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22일) 당 대선후보 경선에 관한 전국동시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각 투표소의 투표결과 내용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떠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 측은 각 캠프 관계자들이 참관인이 돼 결과까지 볼 수 있었던 만큼 유출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면서 당 선관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이 후보 측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문재인캠프 총괄본부장, 박영선 안희정캠프 멘토단장, 정성호 이재명캠프 선대본부장은 이날(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각각 출연해 투표결과 유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송 본부장은 일각에서 '부정투표'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데 대해 "각 후보자의 대리인들 4명이 참관인이 돼 약 1000명(투표소 250개)이 개표결과를 같이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제대로 된 것인데 불가피하게 유출될 수밖에 없었고 단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그러면서 "(유출된 자

료)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당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단장과 정 본부장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단장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문재인캠프 쪽 책임있는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를 지라시,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했더라"며 "유출된 것이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 지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네거티브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는 '한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문 후보 측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등 (안 후보 측) 의원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누군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믿겠나. 또 어떻게 흔쾌히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조직적으로 의지력으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취합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단체카톡(카카오톡)방이 있는데 어제 거기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거결과가) 여러 개 올라왔다"며 "한참 뒤 '선관위 규정에 어긋나니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등 위원장들 간 감론을박이 있었다. 이건 이미 각 지역에서 수집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왼쪽부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22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35%, 12주째 1위 독주...안희정 17.0%, 1.4%p ↑

홍준표 9.1%...지지율 일부는 김진태로 이동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대선국면이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소폭 하락했으나 35%선을 유지하며 12주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3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3월 4주차 주중조사 결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35.0%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의 뒤를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17.0%,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12.5%, 이재명 성남시장 10.5%, 홍준표 경남지사 9.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5.2%, 심상정 정의당 대표 2.5%,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2.5%·남경필 경기지사 1.0% 순이었다. '없음·모름 응답자'인 유보층은 1.9%포인트 감소한 2.2%였다.

문 전 대표는 '전두환 표창 논란' 등으로 주춤했지만 호남과 충청, TK(대구·경북)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유지했다.

또한 수도권과 TK, 20대와 40대 이상층, 자유한국당·민주당·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지지층이 이탈했지만 호남과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지사는 1.4%포인트 상승,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문 전 대표와 18%포인트 차를 보였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0.5%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0.3%포인트 하락, 2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췄으며 홍 지사는 0.7%포인트 하락했다. 홍 지사는 새로 조사에 포함된 김진태 의원에게로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다.

홍 지사의 뒤를 이어 김진태 의원이 TK,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지지율을 결집하며 단숨에 6위에 진입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0.2%포인트 상승한 50.2%로 2주째 50%선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TK에서 40%대에 근접했다.

민주당의 뒤를 이어 국민의당은 2.4%포인트 상승한 14.4%였고 자유한국당도 2.5%포인트 오른 14.1%를 기록했다.

반면 정의당은 1.0%포인트 하락한 5.0%였으며 바른정당은 0.2%포인트 감소한 4.6%로 4주째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임의결기(RDD)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혼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2%다.

goodday@news1.kr

김종인 "4월15일 이전 非文 진영 후보단일화 될 수도"

정운찬 이사장과 조찬회동... "후보 확정후 논의"
민주당 비문계 탈당 가능성 "알아서 할 상황"

(서울=뉴스1) 박선미 기자 = 개헌-빅텐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비문(非문재인)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4월 15일 이전에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빅텐트 불씨가 꺼져가던 국면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찬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비문진영 후보간 단일화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 4월15일 이전에 뭐가 돼도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면서도 4월15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막연하게 후보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가지로 살펴볼 때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 감지하고 알 것"이라며 "더군다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다. 거기서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이 최근 회동을 갖고 연대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 동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후보들이 다 확정된 다음의 문제"라며 "지금 미리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직접 출마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들

이 많지만 그건 상황을 봐야 한다"며 "내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경선 직후 비문계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일"이라며 "본인들이 알아서 할 상황이다. (탈당 조율은) 나는 남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쁜 분들인데 뭐하러 연락을 하나"며 "지금 경선 때문에 한창 바쁜 듯하다. (그들이)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전했다.

전날(22일) 민주당 첫 현장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현장투표가 유출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해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조찬 회동은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성 정당이 아닌, 제3지대에 머무는 두 사람의 이번 회동에서는 대선이 가열되고 있는 국면에서 연정 가능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gsm@news1.kr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형제 떡집

이주하느라 개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3월 20일부터 주문 받습니다.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FOX, NBC, CBS, ABC, MTV, CNN,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국민소득 6년만에 '후퇴'...10년째 2만弗

국민 46.3% 소득 불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세계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340달러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731달러 감소했다.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이번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다.

특히 앞선 사례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 시기에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줄어든 시기는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과 이듬해인 1998년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18달러, 4070달러 소득이 감소했다. 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이듬해인 2009년에도 각각 2569달러, 2160달러씩 국민소득이 줄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민소득은 답보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201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4.9% 성장한 155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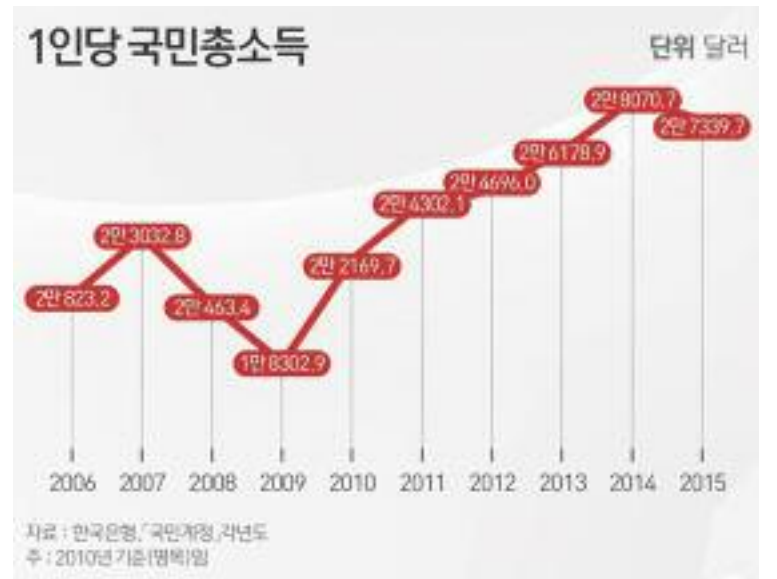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6년 2만823달러를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연 이후 세계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1만8303달러) 1만달러대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10년(2만2170달러) 다시 2만달러대를 회복하는 등 좀처럼 2만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39만9000원으로 전년(437만3000원)보다 0.6% 증가했다. 지난해 가구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전년(256만3000원)보다 0.5%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46.3%는 본인 소득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자(46.5%)가 남자(46.1%)보다 소

득에 대한 불만이 0.4%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oazhoon@news1.kr



대우조선 살린다...신규자금 2.9조 포함 6조 수혈

[대우조선 구조조정]①채권자 '손실분담', 1년반만에 또 지원 2.9조 출자전환 자본확충 "2018년 이후 매각 추진"

(서울=뉴스1) 오상현 기자 =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이 또다시 투입된다.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도 추가로 확충한다. 2015년 10월 신규 자금 4조2000억원과 지난해 말 자본확충 2조8000억원에 이어 총 5조8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신규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인 채무 재조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P플랜(Pre-packaged Plan)'을 통한 청산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대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조선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59조원 넘는 막대한 손실(삼정회계법인 추산)이 발생한다"며 "국책은행,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통해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4월21일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1조5500억원에 이른다. 조선업 불황 등 대내외 악재로 올해 수주량이 6억달러에 그치는 수주절벽에 내몰려 있다. 지난해에는 2조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자본은 5308억원으로 감소해 부채비율이 2732%까지 치솟았다.

특단의 유동성·자본 확충 대책이 없으면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계·법무법인인 삼정KPMG와 태

평양은 2021년까지 적게는 3조1000억원, 많게는 5조1000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선(先) 채무 재조정-후(後) 유동성 지원'을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Worst Case, 부족자금 5조8000억원)를 상정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을 절반씩 분담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자본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출자전환 규모는 2조9000억원 수준이다. 회사채·CP(1조55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7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무담보채권 중 80%(5600억원)도 주식으로 전환한다. 산은과 수은 보유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은 100% 출자전환된다. 대우조선은 1만명 수준인 직영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추가 감원하고 무쟁의·무과업을 약속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안

에 나선다.

회사채 등 채무 재조정이 무산되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P플랜'에 돌입할 계획이다. P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틀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수주업종이어서 'P플랜'은 결국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부채비율이 248%로 떨어지고 차입금이 2조원 내외로 축소되는 등 재무·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이 정상화되고 상황이 개선되는 2018년 이후 민간 매각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우조선을 통째로 매각하는 '빅딜'을 통해 '빅2 체제'로 재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bborirang@news1.kr

대우조선 구조조정 세부 추진방안

■ 모든 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전제로 한 조건부 신규자금(2.9조) 지원

손실분담 채무조정방안

(회사채·CP/약 1.5조원 대상) 50% 출자전환 및 50% 만기연장 (만기연장은 3년 유예후 3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

(시중은행/무담보채권 약 0.7조원 대상) 80% 출자전환 및 20% 만기연장 (만기연장은 5년 유예후 5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

(산은·수은/무담보채권 약 1.6조원 대상) 100% 출자전환

채무조정시 신규자금 지원

채무조정 합의 및 자구노력 추진 등을 전제로 산은·수은이 해당 최대부족자금 2.9조원을 연도방식으로 지원 (우선상환권 부여)

*산은·수은 50%씩 분담/실사결과상 최대 부족자금 5.1조원에서
① 회사채·CP 채무조정 1.5조원, ② 신규자금 전액 0.4조원
③ 채무조정 때 금 융비용 감소분 등 0.3조원 반영

결혼도 출산도 안해... 초혼·첫 출산도 늦어져

저출산·고령화 심화... 2050년 5000만명 붕괴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지난해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초반 인구가 줄고 실업률 증가로 결혼을 미루는 젊은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 몫 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8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7.0% 감소하면서 1976년 이후 40년 만에 3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1974년 25만9100건 이후 가장 적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5.5건으로 전년 대비 0.4건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혼 시기도 늦어졌다. 지난해 남성은 32.8세, 여성은 30.1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은 31.4세로 늦어졌다. 2010년 첫째 아이 출생 평균연령이 30.1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출산율도 낮아졌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감소했다.

이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32년에는 성장률이 0%에 이르고 이후 마이너

스 성장을 시작해 2050년 들어서는 -0.72%, 2060년에는 -0.9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50년 이후 인구는 5000만명 미만으로 내려가고, 2060년에는 45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를 기점으로 이미 30세를 넘어섰다. 2014년에는 40.3세로 중위연령 40세 시대를 시작했고, 지난해 41.5세를 기록했다. 2033년에는 50세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도 위협받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2%이며, 2050년에는 41.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990년 20.0명에서 지난해 98.8명으로 4.9배 증가했고, 2040년에는 현재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상황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전월세 가격 같은 경제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

jinglee@news1.kr



2017 신년 봄맛이 강원 웰니스 식품 보스톤 특판전

Korea(Hoengseong) Food Sales Festival

 강원도 횡성군에서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2개 업체에서, 130여 품목을 준비 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목) ~ 3월 26일(일)

- 장소 : 155 Parker St, Lawrence, MA 01843
- 주관 : 미동북부 강원도민회 ▪연락처 : 732.513.4369
- 주최 : (사)횡성군 가공식품수출협의회

[횡성군 협력 업체]

앤초이스, 예향식품, 서원농협, 청아굿푸드, 산골농장, 만나라,
산내마을, 옥두식품, 밀원, 청태산농장, 참살이, 산들누리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미국, 푸에르토리코 8-0 완파하고 사상 첫 우승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야구 종주국 미국이 제4회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정상에 올랐다.

미국은 2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WBC 결승전에서 푸에르토리코를 8-0으로 완파했다.

미국은 이로써 사상 첫 WBC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주도로 WBC를 주최했지만 1회 대회 2라운드 탈락, 2회 대회 4강 탈락에 이어 3회 대회에서도 2라운드에서 탈락해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1라운드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2라운드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덜미를 잡히는 등 두 번의 패배를 안았지만 준결승, 결승을 잇달아 승리하면서 숙원을 풀게 됐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미국의 결승전 선발 마커스 스트로먼에게 돌아갔다. 스트로먼은 이날 6회까지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푸에르토리코 타선을 푼다. 이번 대회 3경기에 등판한 스트로먼은 15⅓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했다.

어머니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스트로먼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양국의 '러브콜'을 받았

지만 미국을 선택했다. 그는 대회 전 자신의 SNS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엄마에게는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2라운드에서도 푸에르토리코전에 등판해 4⅓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던 그는 결승전에서 완벽히 설욕했다.

스트로먼은 "재미있었다. 플레이오프, 어쩌면 그 이상의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 나라를 대표해 공을 던질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뒤에서 오늘 승리에 기여한 선수들과 우리팀에게 감사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결승전이었지만 승부는 일방적이었다. 미국은 3회초 선두 조나단 루크로이의 안타에 이어 이안 킨슬러의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5회초에는 크리스티안 옐리치, 앤드류 맥커친의 적시타로 2점을 보냈다.

마커스 스트로먼의 호투 속에 리드를 이어간 미국은 7회초 2사 만루에서 브랜드 크로포드의 2타점 적시타와 지안카를로 스탠튼의 적시타로 7-0까지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8회초에도 2사 이후 연속 안타로 한 점을 추가했다.

마운드에서는 스트로먼이 6회까지 역투했고, 이후로도 샘 다이슨, 팻 네섹, 데이비드 로버트슨으로 이어지는 구원진이 마지막까지 푸에르토리코 타선



미국대표팀 선수들이 22일 열린 2017 WBC 결승에서 푸에르토리코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을 침묵시켰다.

카를로스 벨트란, 프란시스코 린도어, 야디어 몰리나 등 메이저리거들이 즐비한 푸에르토리코 타선은 이날 단 3안타의 빈공에 그치며 무기력하게 패

했다.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오른 푸에르토리코는 4년 전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이번엔 미국을 넘지 못하고 2회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푸에르토리코는 이

날 경기 전까지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유일한 패배를 결승에서 당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starburyny@bostonkorea.com

'창사 참사' 한국, 중국에 0-1 충격패...험난해진 본선행

우즈베키스탄에 0-1 패배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 축구가 중국에 무너졌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도 더욱 험난해졌다.

한국은 22일 중국 창사의 허룽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전반 34분 중국의 위다바오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한국은 3승 1무 2패로 승점 10에 머물렀지만 3위 우즈베키스탄도 시리아에 0-1로 져 3승 3패(승점 9)에 그친 덕분에 2위를 지켰다.

중국을 한국을 상대로 이번 최종예선 첫 승을 신고, 1승 2무 3패(승점 6점)가 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 희망의 불씨를 키웠다. 또한 홈에서 한국을 상대로 10경기 연속 무승행진(2무 8패) 끝에 첫 승을 거두는 겹경사도 누렸다.

한국은 지난 2010년 2월 동아시아대회에서 0-3으로 완패한 뒤 7년만에 다시 중국에 무릎을 꿇으면서 상대전적 18승 12무 2패를 기록했다.

중국은 경기 초반 강한 전방 압박과 한국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긴 패스로 경기를 풀어갔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초반 당황하는 듯했지만 전반 15분 지동원의 원발 중거리 슈팅

을 시작으로 흐름을 가져왔다. 이후 왼쪽의 남태희, 김진수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34분 오히려 선제골을 내줬다. 코너킥 상황에서 중국의 왕용포가 연결한 크로스를 위다바오가 머리로 방향을 바꿔 골을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 지동원의 중거리 슈팅과 헤딩 슈팅 등으로 동점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 한 골을 뒤진 채 전반전을 끝냈다.

마무리를 짓는데 답답하던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정협을 빼고 김신욱을 투입, 공격에 변화를 줬다. 김신욱 투입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한국은 김신욱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으로 중국의 골문을 두들겼다. 그러나 구자철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고 기성용이 시도한 2번의 중거리 슈팅은 정청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골이 나오지 않자 한국은 후반 21분 미드필더 고명진을 빼고 공격수 황희찬을 투입, 공격을 강화했다. 이후 한국은 공세를 높였지만 또 다시 마무리가 아쉬웠다. 지동원의 헤딩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고, 홍정호의 헤딩슛은 수비수 몸에 맞고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은 후반 39분 이번엔 새로 발탁된 허용준까지 넣으면서 동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끝내 한국은 중국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중국 원정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22일 중국 후난성 허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내준 한국 선수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한국과 조 2위를 다투는 우즈베키스탄도 시리아에 패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말레이시아 므라카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원정 6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 0-1로 졌다.

우즈베키스탄은 3위에 머물렀다. 반면 시리아는 2승 2무 2패(승점 8점)가 되면서 4위를 유지했다. 또한 월드컵 본선 직행권이 주어지는 2위에 올라 있는 한국과의 격차를 2점으로 좁히면서 본선 진출 희망을 키웠다.

우즈베키스탄은 세르베르 제파로프, 오딜 아메도프 등 주전들을 모두 내보내면서 승리를 노렸다. 하지만 90분 동안 답답한 경기를 펼치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오히려 시리아가 후반 추가 시간에 얻은 페널티 킥을 오마르 크리빈이 침착하게 성공시켜 승리를 챙겼다.

한국은 시리아와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른다.

dyk0609@news1.kr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Korean Church at Concord Church

성삼일 미사 및 전례 안내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1:3)

주일예배 / 오후 2:45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봉부설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일 7:00 | LIFE 모임 / 주일 8:00

담당 목사 / 무지향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BOSTON MILAL KOREA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28:19)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주회: 15 Alpha Rd.,
Cleveland, MA 01624
전화: 978.57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ket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EIL CHURCH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경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3404
www.sarangjeeil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대각부모임: 주일 12시
구각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연합교회: 월 9:30-11:30

담당목사: 김현터
817.73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6.4488
http://wumkc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함께 사랑의 삶을 나누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을 위한 사랑을 나누어줍니다.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연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 2000년도 프로그램,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이사장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2017년도 과기협 수학 경시대회 제 26회 뉴잉글랜드 수학 경시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4월 8일 MIT 에서 2017년 전미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발휘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가대상	뉴잉글랜드지역 4학년 ~ 11학년 학생
대회일시	2017년 4월 8일(토) 1:00PM - 5:00PM (1:00PM check-in 마감, 5:00PM 시상)
대회장소	MIT Building 54 Room 100 25 Ames St, Cambridge, MA 02139
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비 : \$25 (온라인 등록) \$30 (현장 등록) 온라인 등록: www.ksea.org/nmsc/ 온라인 등록 마감: 3월 31일(금요일) 기타: (1)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교육 관련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등록자도 현장에서 check-in 하셔야 합니다.
행사문의	Email: contact@kseane.org 조진행(781-266-6990)



* 강연안내 *

- 학부모가 본 미국 대학 입시 (도삼주 박사)
- 미래의 수학교육 (Math Game House 강혜정 원장)
- MIT 학생

- 매년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2,000명 이상)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www.ksea.org/nmsc/) 에서 미리 온라인 등록을 해주시면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등록 마감은 3월 31일 입니다.
- 1시30분에 학년별 시험장소로 이동하니 반드시 1시 이전에 오셔서 check-in 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최: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정식 지압가게에서 지압사 구함
사우스케롤라이나
T. 678-267-4624

SAT/SSAT/ACT/TOFEL 21년 전문지도
현직 고교 SAT/AP 영어교사
확실한 효과 보장 T. 781-392-8505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지압가게 매매

지압가게 매매합니다.
사우스케롤라이나
T. 404-397-480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군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익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행)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978-448-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글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톡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헤어인테리어	508-734-0446
웨스트메인헤어	508-768-7675
케이티헤어디자인	978-772-7886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한은애교정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스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성형, 탄력은 높이고! 나이는 낮추고!"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렉스성형외과' ... "수술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술해야"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 보이면 무시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려 보이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동안 열풍을 타고 TV에는 동안 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안인 사람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늙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중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눈과 관련된 성형이다. 첫 인상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부위가 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눈가는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어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위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꺼풀이 처지고, 눈 밑이 처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이나 눈 밑 처짐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늙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진 때문에 동안성형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자연스럽게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아졌다. 당연히 사진이 더 잘 나오기를 바랄 것이고, 눈꺼풀 처짐, 눈 밑 처짐은 사진이 잘 나오는데 방해하는 요소다.

★ 상안검수술 :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눈꺼풀이 늘어져 처지게 되면 눈꺼풀이 눈을 덮어 눈을 찌르



처진 눈꺼풀, 상안검수술로 개선

나 시야를 가리게 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눈동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된다.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기 위해 이마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단순히 눈을 크게 뜨기 위해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주게 된다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힘을 주거나 이마를 사용하기 보다는 성형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을 권한다.

눈꺼풀 처짐의 경우 상안검 수술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상안검 수술은 처진 눈꺼풀의 피부를 절개하여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근육, 지방 등도 같이 제거하여 눈

폴 처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를 안검하수라 하는데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기 때문에 줄려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다. 중년들의 경우 눈꺼풀 처짐과 안검하수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안검을 받는 것이 좋다.

상안검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편이다.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해야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안검 수술 부위는 쌍꺼풀과 같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쌍꺼풀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생기는 쌍꺼풀까지 고려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 하안검수술 : 피부노화로 인해 눈



눈 밑 지방과 처진 피부, 하안검수술로 개선

밑의 피부가 처지거나 눈 주변 지방이 처지게 되면 눈 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된다. 늙어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지만 심한 경우 고집 있어 보이고 괴팍하게 보이도록 한다. 눈 밑 처짐으로 인해 늙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인다면 자연스러운 피부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형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을 권한다.

눈 밑 처짐의 경우 하안검 수술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뿌리 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절개 후 늘어진 피부, 지방을 제거하여 눈 밑 처짐을 개선시키는 수술이다. 눈 밑의 지방으로 인해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는데 다크서클은 얼굴을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도록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다. 그래서 눈 밑의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여 다크서클을 개선시키는데 하안검 수술도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던 사람은 잔주름 개선은 물론 눈가가 환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마다 수술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하안검 수술 역시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편이다. 획일화된 수술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이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하는 것을 권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통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00~35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속케어,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추리의 여왕' 권상우vs최강희 역대급 앙숙 케미 예고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권상우와 최강희가 역대급 앙숙 케미를 예고했다.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극본 이성민/ 연출 김진우 유영은) 측은 22일 권상우와 최강희의 유치찬란한 디스전이 담긴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흡사 랩 배틀을 방불케 하는 하완승(권상우 분)과 유설옥(최강희 분)의 디스전이 담겨 있다. 봄바람을 맞으며 골목길을 걸어가가는 상큼한 비주얼의 설옥과 잔뜩 표정을 구긴 채 폴리시라인을 걸어내며 나오는 완승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번 영상은

이내 서로에 대한 거침없는 험담 대결로 이어진다.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없는 팩트 폭행을 날리고 이를 통쾌하게 맞받아치는 유치찬란한 험담 대결은 엔돌핀으로 가득한 역대급 코믹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추리의 여왕'은 생활밀착형 추리퀵 설옥과 하드보일드 베테랑 형사 완승이 환상의 공조 파트너로 거듭나 범죄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까지 풀어내는 휴먼 추리 드라마다. '김과장' 후속으로 내달 5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nahee126@news1.kr



'김과장' 준호, 박영규에 배신-납치 "남궁민이 구했다"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김과장"의 박영규가 결국 준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22일 방송된 KBS2 '김과장'에서는 박현도(박영규)가 서울(준호)을 희생양으로 삼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한동훈(정문성)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 TQ그룹의 회계 자료를 모두 챙겼고 이강식(김민상)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박현도는 정체 모를 노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이강식은 풀려났다. 그러나 이 사태를 대신 무마해줄 희생양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성룡(남궁민)은 "박현도가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이는 당연히 본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희생양은 서울이었다. 결국 박현도는 서울에게 타이판스뱅크의 권한을 모두 넘기고 급한 것부터 해결해달라

며 뒷을 놓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성룡은 서울을 찾아가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성룡과 앙숙인 서울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성룡은 안타까워 하며 방을 나갔고 서울은 그가 나간 자리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서울에게 검찰관계자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 그를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서울을 납치했다. 범인은 최부장이었다. 최부장이 서울이 도주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것. 최부장은 서울을 묶어둔 채 "분수껏 사세요 힘부로 기어오르지 말고"라고 경고했다.

김성룡은 서울의 비서와 함께 무장을 하고 폭력배들이 있는 장소로 들어갔다. 성룡은 "생명의 은인을 구할 것이다"라는 각오로 애증의 관계인 서울을 구하러 뛰어 들었다.

jim928@news1.kr



'피고인' 지성·엄기준, 배우라는 이름의 가치를 증명하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지성과 엄기준이 끝까지 명대결을 보여줬다.

지난 21일 종영한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에서는 박정우(지성 분)와 차민호(엄기준 분)의 마지막 대결이 그려졌다. 지성과 엄기준 두 배우는 끝까지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묵직한 드라마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차민호는 정신에 이상이 온 것처럼 연기해 위기를 피하려 했다. 판사까지 차민호를 도우면서 박정우는 답답함에 몸부림쳤다. 그때 나연희(엄현경 분)가 나섰다. 뺨속까지 악인인 차민호도 아들을 언급하는 사랑하는 여자 나연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박정우는 차민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차민호는 과거의 박정우처럼 사형수 표시인 빨간 번호를 단 채 징벌방에 수감됐다.

'피고인'에서 주목할 점은 단연 지성과 엄기준의 연기 대결이었다. 드라마 시작 전부터 이는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었지만,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극중에서도 대립하는 두 배우의 연기는 승패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전율을 선사했다.

지성은 최고의 검사에서 한순간 사형수라는 낙으로 떨어진 박정우 역을 맡으면서 피폐한 결모습부터 온 몸을 내던진 연기로 박정우의 심리를 표현해냈다. 기억이 없어 혼란스러운 박정

우의 내면을 눈빛과 표정,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으며 차민호를 향한 복수를 불태우며 통쾌한 결말을 선사했다.

엄기준은 최고의 악역을 보여줬다. 차민호, 차선호 쌍둥이 형제를 연기할 때는 각 캐릭터의 전혀 다른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했고, 살인 연기를 할 때는 오히려 절제된 모습으로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매회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엄기준이 왜 연기 잘 하는 배우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만들었다.

마지막회에서 지성은 정신적 문제를 거들먹거리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차민호를 보면서 핏발이 선 눈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엄기준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나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언급할 때만은 진심으로 슬픔을 드러냈다. 징벌방에 갇혀서 학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 역시 눈길이 쫓히게 했다.

두 배우가 끝까지 명연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마지막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28.3%의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3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의 이유에는 스토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지성, 엄기준의 연기력 지분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지성과 엄기준의 연기는 모두가 한동안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ppbn@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3월 13일 ~ 2017년 3월 1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7%
2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25.5%
3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4.7%
4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2.0%
5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7.8%
6	KBS1	KBS9시뉴스	16.8%
7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6.7%
8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14.8%
9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7%
10	MBC	일밤(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2부)	14.4%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6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7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8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9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0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기
02	KNOCK KNOCK	TWICE
03	Fine	태연
04	Rookie	레드벨벳
05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6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07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8	YESTERDAY	블락비
09	봄날	악동뮤지션
10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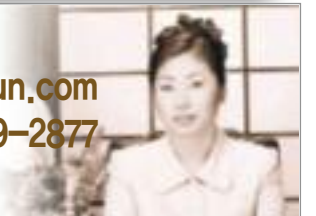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4	9
		2	6			3	
	6	5		4	9		8
6	9		1	5	4		
			7		2		
			9	3	6		1 8
	8		4	9		3	2
	3				1	4	
4	1						

3월 26일 - 4월 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p> <p>●운수: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금전: 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인 것입니다. ●애정: 진실을 알고 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p>	<p>소띠 말수를 줄여야</p> <p>●운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애정: 말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p>	<p>범띠 기쁨을 주는</p> <p>●운수: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금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애정: 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0, 1일 길일, 28, 31일 주의.</p>
<p>토끼띠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p> <p>●운수: 세상살이가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30일 길일, 26, 1일 주의.</p>	<p>용띠 큰 것을 챙기도록</p> <p>●운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해야 합니다. ●금전: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챙기도록 하세요. ●애정: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28일 길일, 27, 31일 주의.</p>	<p>뱀띠 일생일대의 기회가</p> <p>●운수: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절반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애정: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1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말띠 이리저리 계산하게</p> <p>●운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금전: 돈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애정: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거나 점점 무뎠어지 마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양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p> <p>●운수: 그 어느 때보다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전: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애정: 혼자 공명되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주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1일 길일, 26, 27일 주의.</p>	<p>원숭이띠 지출을 신경 써서</p> <p>●운수: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차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30일 길일, 29, 31일 주의.</p>
<p>닭띠 일을 분담해야</p> <p>●운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에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애정: 믿음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할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개띠 해결책을 찾고</p> <p>●운수: 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시간적이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 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돼지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p> <p>●운수: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고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남보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p>

신하균 · 김고은까지, 연예계 우여곡절 결별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유난히 결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2017년. 열애 인정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커플들이 연이어 결별 소식을 전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오랜 기간 연인 사이였던 최자와 설리를 비롯해 알렉스와 조현영, 온주완과 조보아, 이상윤과 유이, 장기하와 아이유, 이흥기와 한보름, 신하균과 김고은 등이 연인에서 동료로 돌아갔다.

◆ 신하균 · 김고은

신하균과 김고은은 22일 결별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호두엔유 엔터테인먼트 측은 "바쁜 스케줄로 2월말 헤어졌고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열애 소식이 알려졌던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17세라는 나이 차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하균은 1974년생, 김고은은 1991년생이다. 이후 김고은이 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하균의 소속사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 최자 · 설리

지난 6일 최자와 설리는 지난 2014

년 8월 열애 인정 후 2년 7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다.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처 측은 당시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열애 기간 내내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섰다. 동반 여행부터 셀카까지, 설리의 SNS에 공개된 사진들로 화제를 모은 것. 이에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설리는 지난 17일 지드래곤과 때 아닌 열애설에 휩싸이며 한번 더 관심을 모았다.

◆ 장기하 · 아이유

장기하와 아이유 역시 가요계 공식 커플이었던 만큼 결별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0월 SBS 파워FM '장기하의 대담한 라디오'에서 첫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년 뒤인 지난 2015년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각각 음악 활동에 매진 중이다. 아이유는 오는 24일 1차 선공개곡 '밤편지' 음원을 발표한다. 장기하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북미 투어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상윤 · 유이



지난해 초부터 사귀기 시작해 5월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상윤, 유이도 결별 소식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월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 소속사는 "울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각자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후 제작발표회 혹은 방송 등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연말 시상식 당시에도 유이는 진행 중 이상윤에 대해 당당하게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이들의 결별 사실 역시 주목을 받았다.

aluemchang@news1.kr



'무한도전' 유재석, 박복의 아이콘 굴욕 씻나...박명수 팀에 반격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멤버들이 '대결! 하나하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는 25일 오후 6시 20분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에서는 반격에 나서는 유재석의 모습이 그려진다.

앞서 7주 만에 돌아온 '무한도전'은 쉬는 동안 마음 편히 즐기고 노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유재석은 박명수, 양세형, 광희 팀과의 게임에서 전패하며 '박복의 아이콘'에 등극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전패의 굴욕을 맛본 유재석이 제안한 클레이 사격과 축구 대결이 이어진다. 클레이 사격은 매 경기 패했던 유재석이 유독 자신감을 내비친 게임으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리고 이어진 대결은 축구. "내 슛에 맞아 배에 축구공 자국이 있는 사람이 있다", "트래핑으로 걸어가다가 임진각이 나왔다"는 등 멤버들은 경기 시작도 전에 허세를 부리며 기싸움을 펼쳤다고 한다. 그러나 실전 경기에서는 공을 쫓아우르르 몰려다니거나, 바람에도 쓰러지는 모습이 경기 진행이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소소한 게임으로 시작된 경기가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로 이어진 '대결! 하나하나'.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유재석 팀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aluemchang@news1.kr

'라디오스타' 광희와 절친들, 의리+입담 모두 잡았네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22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의리나 의리남 특집으로 추성훈, 황광희, 이지혜, 정다래가 출연했다.

이날 추성훈은 광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밝혔다. 추성훈은 "처음 봤을 때 목소리나 화장 등을 하는 모습

에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자를 좋아하더라" 고 덧붙여 입담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예쁘게 자라고 있는 딸 사랑이의 근황을 공개하며 딸바보의 면모를 드러냈다.

광희도 만만치 않았다. 광희는 "방송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노래를 못하더라" 는 김구라의 지적에 "그래서 프로필에서 가수 뻘뻘. 노래 안한다. 예능인이라고 하면 안 웃길지도 몰라서 방송인이라고 했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galaxy9@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dislaw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L9' 제작진 "새 크루 AOA 혜정, 솔직하고 순발력 있어"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혜정, 강윤, 김현주가 'SNL 코리아' 크루에 합류한다.

tvN 'SNL 코리아' 제작진은 오는 25일 첫 방송을 앞두고 AOA 혜정과 'SNL 크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강윤, 김현주의 합류를 알렸다.

혜정은 'SNL 코리아'에서 숨겨진 매력과 끼를 방출하며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그는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제작진은 "솔직하고 털털한 입담과 순발력을 가진 혜정이 'SNL'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혜정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은 다양한 드라마와 연극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신인 배우다. 김현주는 채널A '도플갱어쇼 별을 닮은 그대'에서 배우 박소담을 닮은 외모로 출연한 바 있다.

이들이 신동업을 비롯해 유세윤, 정성호, 김준현, 정상훈, 안영미, 정이랑, 권혁수, 이세영, 김민교, 장도윤 등 기존 크루들과 어떤 케미를 빚어낼지 궁금해진다. 제작진은 "새로운 크루들이 합류해 더욱 강력한 웃음과 재미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새롭게 단장한 시즌9을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3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빛나라 은수 |
| 2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3 | KBS |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
| 4 | SBS | 우리 갑순이 |
| 5 | SBS | 피고인 |
| 6 | KBS | 다시 첫사랑 |
| 7 | MBC | 언제나 봄날 |
| 8 | MBC | 행복을 주는 사람 |
| 9 | KBS | 김과장 |
| 10 | MBC |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

티보플레이 3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요상한 식당 |
| 2 | CJ E&M | 편의점을 털어라 |
| 3 | CJ E&M | 더 벅커 8 |
| 4 | SBS | 정글의 법칙 in 수마트라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 1 | 조작된도시 (예정) | 지창욱, 심은경 |
|---|------------|----------|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이정진, 프로듀서 완벽 변신

(서울=뉴스스타) 박건욱 기자 = 배우 이정진이 tvN 새 월화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과시했다.

이정진은 지난 20일 밤 11시 첫 방송한 tvN 새 월화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원석을 발굴하는데 뛰어난 능력과 환칠한 비주얼을 모두 겸비한 프로듀서인 최진혁 역으로 안방극장을 찾았다.

최진혁은 음악의 작품성만큼 상품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로, 인기그룹 크루드플레이와 채유나(홍서영 분)를 스타로 만듦과 그 실력을 인정 받은 가요계 미다스의 손이다.

그는 정체를 숨긴 천재 작곡가 강한결(이현우 분)과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업적으로는 냉철하지만 아티스트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프로듀서의 모습을 보였다.

kun1112@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향집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조국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보내주세요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재외선거 ▼ 검색 또는 ok.nec.go.k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7. 03. 30까지

신고·신청 방법

※ 여권사본 등 미제출

▶ 인터넷 이용 (ok.nec.go.kr 또는 ova.nec.go.kr)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 공관방문 / 순회접수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전자우편 이용신고 주소 (kcgboston@mofa.go.kr)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콜센터 +1-617-641-2830 전화문의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승화(Sublimation)로의 길...

봄이 오기가 싫더니 어제는 눈이 한차례 내렸고, 오늘 아침은 말간 햇살의 날이다. 봄은 봄인데 겨울 같은 봄이다. 어쩌면 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겨울 속에 봄이, 봄 속에 여름이 그리고 가을이, 겨울이 또한 그 속에 사람들인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가 싶다. 이른봄을 알리는 봄꽃들을 만나면 웬지 늘 마음의 시름은 어떤 일일까? 겨우내 견뎠을 그 흑한을, 그 기다림, 쓸쓸함, 외로움이 바로 내 모습인 것처럼 마음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일 게다.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에 나의 일이 크든, 작든 언제나 제일 큰일이 되곤 한다.

내가 겪는 일이 지금에 당한 일들이 제일 힘겨운 일들이라 말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들을 만나며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놀라움과 때로는 경이로움마저 들기도 한다. 남이 겪는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별안간에 당하는 일 중에 남편을, 아내를 또한 부모님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다는 표현조차도

민망스러운 일들을 또한 만나기도 한다. 그 어려움을 곳곳하게 잘 견디어 내고 일어서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들게 한다.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잘 견디어 낼 수 있던 말인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한다. 어찌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찢긴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만 그 아픔과 찢긴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듬으며 씻어내고 또 씻어내었으리라. 그리고 그 상처 난 자리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을 것임을 안다.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슴속으로 삭이고 또 삭이고 그래서 언제나 가 그 아픔이,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을 것이리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삶의 깊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것이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아픔들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창조주에게 따져 묻을 때도 있는 것이다. '하필이면 왜, 나냐고?' 말이다. 한참 후에야 알아 가는 깨달음은 결국 감사뿐인 것을 나중에야 고백하고 만다. 그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어찌 우리의 삶 속에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만 있겠는가. 우리네 삶 가운데는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때로는 어둠이 짙고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던가.

고통이 꼭 아픔은 아님을 깨닫는 날이다. 어둠이 절망이 아님을 깨닫는 날이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에 그저 감사한 일이다.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에 감사한 일이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서는 남다른 힘이 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는 자유의 빛깔을 가끔 만나기도 한다.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꿈을,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는 눈 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눈빛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일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일 그리고 걸어 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이다. 다만 어려움을,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극복하여 승화(Sublimation)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이다.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견디어 내어 일어서는 일이다. 그 고통의 아픔이 바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길, 그 고통으로 얻은 많은 감사가 또한 축복임을 고백하는 날이 오늘이길 바라며 기도한다.

어둠은 절망이 아니다. 어둠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힘겹지 않게 지낼 수 있으면 더없는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편안함이 평안함이 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평안이 주는 안식이 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가를 말이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에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며 '고통'이란 말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는다. 너무도 감사한 축복이라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못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감사이다.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고통이 주는 갑절의 감사'를 배웠다. 고통이 묻어 있는 평안함을...



삼월의 눈썹은 가히 기록적이었다. 폭풍을 동반했으니 눈내리는 소리도 힘차게 차가웠다. 눈에는 차츰 비가 섞였는데, 피부는 눈은 세상을 구석구석 덮었다.

용해원 시인이다. 고백이 절절하다.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용해원, 죽음이 나에게 찾아 오는 날은 중에서)

마태의 법칙. 마태복음 효과라고도 한다. '경제력이나 사회학적 지위를 얻은 사람이 더 많은

경제력이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큰 현상' 이라고 본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다.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주인의 하명 下命은 충격적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가진 자에게 주라.'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라고도 할까.

숫닭 한마리는 암탉 서너마리와 한가족을 이룬다. 그런데, 암탉이 불쌍하다고 숫닭을 한마리 더 넣어 줄수도 있다. 서로 사이 좋게 한지붕 밑에 두가정 꾸리라는 가락한 발상이다. 이때 숫닭이 '감사합니다. 공평히 나누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단다. 치열한 닭싸움 벌여, 이긴 숫닭이 모든 암컷을 취한다 했다. 승자독식의 원칙이 철

한담객설閑談客說: 마태의 법칙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히 지켜진다는 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뭇 이렇진대, 과연 인간세상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질 수있을 것인가?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도 있다. 주자朱자가 말했다. 물이 차면 갯바다에 얹혀있던 배들도 모두 뜬다는 말이다. 경제학적 해석이 재미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못 사는 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 분배나 성장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요체인듯 싶다. 성장이 먼저일까. 분배가 우선일까? 밑물이 들어오기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나? 덕분에 내 작은 똑딱선도 뜰 수 있을까? 글썽, 물이 들어오는데, 엔간히 많은 물이 아니면 될성 싶지않아 하는 말이다.

토마스 프리드먼 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제로섬이 아닌 윈윈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밑물이 밀려들어 모든 배를 띄우는 거다. 수도선부 정책이라 해야겠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거둘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

모두 부자들만 들어 섰으니, 미국이 봉건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제후들에게 전승물로 각 각 땅을 떼어주고, 충성을 받아내는 것 말이다. 미국대통령이 임명할 수있는 자리가 4000개라던가. 인물을 고르고 임명하느라 바빴을 텐데, 자리는 다 채워졌는가?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 있을까? 쉽지 않은 듯 싶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고 말하는 건 민망하다. 밑물이 곧 들어 올것이란 말도 구차하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달란트를 남기고 (마태 25:16)

1. 마태는 사도중에 한사람이다. 본래 직업은 세무공무원이다. 역시 돈과 깊은 관련이 있을듯 싶다.
2. 중앙일보, 2011.01.03.
3. 서둘지 않고, 공력을 쌓다보면 큰일도 이룰수 있다는게 원래 해석이다.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uper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

MSRP, As shown, MS2132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09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onda Music, 8-SPEAKER PREMIUM SOUND SYSTEM, 17" ALLOY WHEELS, 17" WHEEL ARCH MOLDINGS, 17" WHEEL ARCH MOLDINGS, 17" WHEEL ARCH MOLDINGS

MSRP, As shown, MS21125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9" 5-spoke alloy wheels, 19" WHEEL ARCH MOLDINGS, 19" WHEEL ARCH MOLDINGS

MSRP, As shown, MS21195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 Alloy Wheel,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2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ing Blind Spot Warning, 8 inch Color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17" Alloy Wheel

MSRP, As shown, MS2112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Apple CarPlay, Android Auto, 17" Alloy Wheel, Fog Light

MSRP, As shown, MS21125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Seating surface,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 Alloy Wheel, Fog Light

MSRP, As shown, MS21642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담배 1개비는 당신의 수명을 11분 단축시킬 수 있다

보스톤 새생활 센터

“火從木出還燒木”(화종목출환소목)이라는 말은 직지심체요절에 나오는 고승대덕의 말입니다. 이 말은 ‘불은 나무에서 생겨나 도리어 나무를 불사른다’는 말로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무끼리 비벼서 불을 얻었으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계속 불에 얹었고 그 불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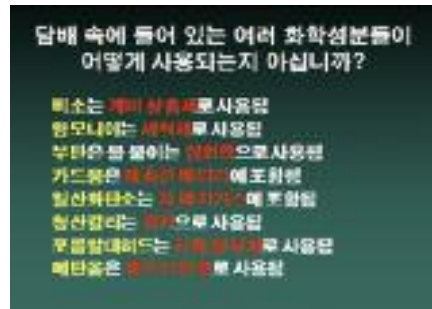
나무의 처지에서 보면 나무에서 불이 생겼으니 그 불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화목이 되어 수없이 불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늑은 쇠에서 생겨나 쇠를 갠아먹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것은 비길 데 없이 단단하지만 쇠를 못 쓰게 만들고 마는 것은 결국 쇠 자신에게서 생겨납니다. 쇠로 만든 연장은 모든 것을 베고 쓰러뜨리고 갈아엎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정작 그의 내부에서 생긴 녹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의 삶 중에 담배만큼 건강에 큰 해를 주는 것도 또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흡연 때문에 생긴 질병들은 성인병과 각종 암의 원인이 되어 수명 단축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담배가 포함하고 있는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4,000여종에 이르며 그 중에 타르는 발

암성 물질이고, 니코틴은 마약성분으로 반감기가 25분 내지 30분 정도입니다. 결국 담배 한 개비는 인간 수명을 11분 단축시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도표 1>



<도표 2>

담배를 끊을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막상 담배를 끊은 사람은 아주 적어 결국 담배에게 희

생(犧牲)되고 맙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비결은 NEWSTART 단연법(斷煙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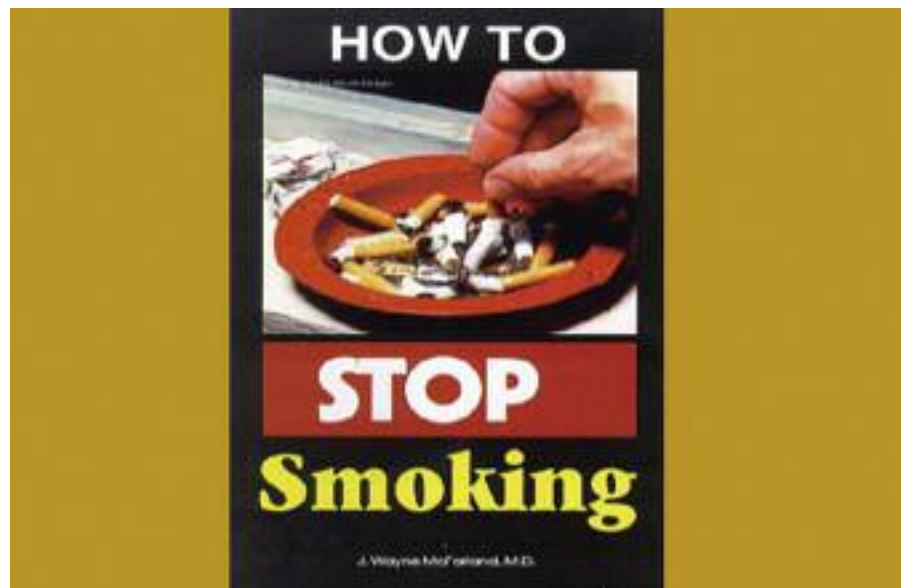
‘NEWSTART 斷煙法’이란 담배를 끊는데 음식은 어떻게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하며 이에 맞는 금연식단을 짭니다.

그리고 흡연과 운동, 물을 사용하는 방법, 금연과 햇빛의 역할, 담배와 술, 커피, 약물, 마약의 관계 그리고 흡연과 맑은 공기 즉 담배속의 일산화탄소 가스의 위험성과 공기오염문

제, 담배와 휴식, 스트레스 해소문제, 그리고 자아(自我)정복을 위하여 신앙심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흡연자들의 단연(斷煙)을 성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NEWSTART 단연 프로그램은 새로운 습관으로 새 삶을 새롭게 출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흡연으로 잃은 건강, 단연(斷煙)으로 건강회복하여 가정과 이웃과 교민사회가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1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2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다함의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삼국사기에 나온다. 사다함열전에 보면 이사부가 562년(화랑세기에는 561년)에 가야를 정벌할 때 사다함이 간청하여 참전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15~6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다함의 출생연도가 545경이 된다. 502년에 태어난 거칠부와 사다함의 나이 차이가 43세 가량인데 할아버지라면 몰라도 증조부가 되기에 나이 차이가 적다. 게다가 사다함은 형 포함과 누이 새달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칠부가 내물왕의 5세손이기에 사다함이 증손자라면 8세손이 되어야 하는데 삼국사기에는 사다함이 내물왕의 7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로만 봤을 때는 김원순(사다함의 조부로 예상되는...)과 김구리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즉 구리지의 조상이나 김원순의 후손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화랑세기에는 김구리지의 아버지가 비랑이다. 또한 어느 문헌에도 김원순과 비랑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화랑세기의 기록을 무시하고 거칠부가 사다함의 증조부라는데 동의하기가 주저스럽다.

사다함의 요절로 많은 낭도들이 4세 풍월주를 지낸 이화랑을 복위하려고 하였지만 이화랑의 사망과 사다함의 추천으로 세종이 6세 풍월주에 올랐다. 그러면서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후손들이 일단 화랑도의 수장에서 물러나

고 그 중심축은 6세 풍월주 세종의 부인인 미실의 손아귀로 넘어 가게된다. 범흥왕 때 위화랑으로 부터 시작된 풍월주의 지위는 그의 아들 이화랑이 4세 풍월주를 지냈고, 2세 풍월주 미진부공은 누이의 외손자이고 3세 풍월주 모랑공은 사위이다. 미진부공은 이부동복 누이 벽화부인의 딸인 삼염공주(범흥왕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의 아들이다(아버지는 아시공). 그리고 3세 풍월주 모랑공은 딸 준화의 남편이다. 5세 풍월주 사다함은 딸 금진낭주의 아들이다. 위화랑에 시작한 풍월주의 계보는 아들, 사위, 외손자 등 위화랑의 집안이 독식하였다. 그래서 아마도 김대문은 자신의 조부, 아버지로 이어졌던 풍월주의 계보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모든 풍월주들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화랑세기’를 집필한 것으로 사료된다(화랑세기는 김대문의 아버지 오기공이 향음(鄕音)으로 기록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뒤 김대문이 완성했다).

197) 김거칠부(金居柒夫)(502 ~ 579), 혹은 김황종(金荒宗), 그는 진흥왕, 진지왕 때의 학자, 장군 그리고 상대등을 지냈다. 삼국사기 권 44에 나오는 그의 열전에 의하면 ‘내물왕의 5세손이고 할아버지는 임숙(仍宿) 각간이고, 아버지는 물력(勿力) 이찬이다. 거칠부는 젊었을 때 건들거리며 차분하지 못했지만 원대한 꿈이 있었다. 승려가 되어서 유람을 하다가 고구려

를 염탐하고자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해랑(海郎)사가 설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 해랑이 거칠부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알아보고 잡힐까 염려되니 빨리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와 함께 부탁의 말도 잊지않았다.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던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했다. 신라로 돌아온 거칠부는 환속을 하여 관품이 대야찬에 이르렀다. 545년에는 여러 문사들을 모아 ‘국사(國史)’를 편찬했다. 그리고 파진찬으로 올랐다. 진흥왕 12년(551년) 거칠부는 구진, 비대, 탐지, 비서, 노부, 서력부, 비차부, 미진부 등의 장관들과 함께 왕명으로 백제와 고구려 침공 하였다(고구려 침공시 해랑(海郎)법사로 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않고 말에서 내려 군사예법으로 보답하였다. 그리고 해랑의 뜻에 따라 신라로 데려와서 왕을 배알하니 왕은 해랑을 승통으로 임명하였다). 거칠부는 576년에 상대등이 되었고 78세 까지 장수하였다.’

여기 나오는 구진은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의 침신이었고, 미진부는 2세 풍월주이다. 당시의 유능한 장군들이 화랑도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GOLDEN CHICKEN OLIVE

Always be happy with bb.q premium café menu.
We are proud to use only the best ingredients on
everything we serve.



SOFT OPEN

2017.3.23. 5PM
617.903.3359



bb.q
CHICKEN

They returned for more when they found out
the bbq chicken were actually good.

**18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가맹점 모집 :
franchise@bbdotqusa.com
617.304.700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旬 (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마태복음 4:4)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최근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에 걱정이 많다. 공화, 민주 양당 모두가 5월 9일 대선 이후에 들어설 한국 새 정부의 대북한 정책 추이에 관심을 쏟고 있다.

브레드 셔먼 미 민주 하원의원은 “개정공단에서 힘들게 번 노동자의 수입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쓰인다고 개성공단 재개(再開)를 반대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앤 와그너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고

차기 한국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백지화 하거나 대북 체제에 소극적 우려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보좌관이 한국을 방문, 차기 집권가능자들을 만나 대북한정책을 탐색한 결과, 집권 가능한 민주당 후보가 ‘급격한 대북정책 전환을 공약’ 하고 있어서 한미간에도 급격한 변화가 온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당선되면 2억 달러 가량 김정은에게 흘러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 고 공언했으나 미국은 반대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친문진영을 비판, 민주당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나 1위 문재인, 2위 안희정 충남지사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은 뻔 한 일이다. 안 지사가 “질리고 정(情)떨어지게 한다” 는 말고 이 ‘경쟁’ 에서 나온 말. 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지만 호감(好感)을 겸한 상승세보단 비(非)호감을 갖는 추세인데 반하여 안 지사는 호감을

상승중이다. 쓸어버리고 백지화하고 뒤집겠다는 생각과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연구력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력을 되풀이중이다.

한미 양국 간 공조(共助)체제도 만약 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한국에서 철회한다면?

한미 양국의 공조도 눈앞에! 이같이 민주당이 집권해서 한미 간 정책 마찰이 표면화되면 김정은 북한정권은 이익, 안보위기에 직면할 한국, 한-미동맹은 노무현 부시(Bush)행정부 불협화(不協和)가 북한 핵(核)실험 + 고농축 핵실험을 몰고 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존 정치인들과는 계산 또는 타산법이 다른 미국 지도자를 상대로 대북정책을 다루게 된 것도 하늘이 주신 은혜(恩惠)로 봐야한다. 지금까지 한반도(韓半島)의 공산세력을 정확히 계산했던 외국지도자가 없었으므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며 “북한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Playing)했다.

반면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나왔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는 끝났으며 “군사적 옵션은 물론 모든 옵션을 모두 검토 중” 이란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갈등까지는 원치 않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또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 할 시점이 아니다” 며 “(핵)동결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 라고 답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러시아도 그렇다” 며 “모든 나라에 (대북한 제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이라고

트럼프 정권이 북한 문제 민감하게 핵심(核心)을 짚었다는 평.

문제인처럼 개성공단이다 김정은 만난다. 계속 되뇌어 봐도 이용한 당하기 일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김정은이 만났지만 달라진 것 없듯이 말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전보다 북한과 정면 대결을 계획할 듯.

旬 순: 열흘 순. 쉽게 십일(十日)을 뜻한다. 3월 1일 “재(灰: Ash)의 수요일에 시작, 4월 16일 (부활절: Easter Sunday)까지 총 47일간중 7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2017년 기준 3월 1일에서 4월 16일까지 만 40일을 사순절(四旬節)로 지킨다.

이 사순절의 유래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리어 마귀(魔鬼)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몸시배가 고픈데 시험하는 사탄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 이 칼럼 전문과 같음.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使者)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 It is also written :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 마태복음 4:4-10.

지금 기독교회들은 예수님의 사순절(四旬節) 고난을 묵상하느라 매일 새벽 또는 아침기도, 설교, 묵상시간을 가진다.

사순 즉 四十日 묵상을 통해 신앙을 돈독하게 키운다.

四十日은 곧 十字架(십자가)를 40일 동안 묵상한다. 十은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육체를 키우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혼을 키워 천국(天國) 또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靈生)을 즐긴다는 뜻. 하여 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식구가 되기위해 땅에서는 이웃과 친척을 사랑으로 (一) 천국 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식구로 (一) = 十 사랑하게 되는 천국시민이 돼서” 十 사랑이 해처럼 빛난다 해서 旬=하나님 숨결 (ノ) 이 햇빛(日)을 감싸는 등(燈)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 There will be no more night. They will not need the light of a lamp or the light of the sun, for the Lord God will give them light. And they will reign for ever and ever. - 요한계시록 22:5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골라온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제1차 Newstar JBL Realty 정기 세미나



남문기 회장 초청 강연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벤치마킹 하라”

\$300로 시작된 남문기 신화, 아메리칸드림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듣는다



명예 회장 남문기 Chris Moonkey Nam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 로스앤젤레스 직선 한인회장 (제28대)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제23대) |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 (제21대) |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 (공) (역임)

사전 예약 및 분양문의: 이 제봉
781.654.5281

일시: 3월25일 (토) 4:30~7:30PM

장소: Newstar 부동산 Boston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통영 스텐포드 호텔 & 전미 세미나 투어

한려수도의 황홀한 비경이 한 눈에
뒤로는 미루산의 싱그러움 녹음이...

총무공 이순신장군의 호령했던 통제영 포구에
21세기 최첨단 호텔 콘도 리조트가 우뚝 섭니다.

통영 스텐포드 호텔 전미 세미나 투어

주최: Newstar JBL Realty

- 3/24(금) 달라스
- 3/25(토) 보스턴
- 3/27(월) 뉴저지 뉴욕
- 3/29(수) 시카고

120 유닛 총 600 계좌중 선착순 계약, 세미나 투어기간 중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분양 문의: 781.654.5281 (이제봉: Newstar JBL Realty 대표)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8) 투자해야 하는 이유

미국 전 국민의 순 자산이 \$92.8 Trillion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 자산이란 집, 주식, 채권, 자동차, 현금 모두에서 주택 융자금, 신용카드, 학자금, 자동차, 등 모든 빚을 제하고 남은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공신은 주식투자 상승으로 작년 4분기에만 무려 \$728 Billion이 늘어났습니다.

2007-09경기 침체로 미국민의 자산 \$13 Trillion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순 자산이 \$38 Trillion으로 다시 늘어났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식에 투자한 소수에 불과합니다. (U.S. Household Net Worth Reaches For \$92.8 Trillion, Morningstar, March 9, 2017)

2009년 3월 9일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은 2007년 최고점에서 무려 56.8% 폭락했습니다. 아이들 학자금과 노후 은퇴자금이 반 토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4년 후 2013년 3월 새로운 최고점으로 도달한 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 8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기에 언젠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이익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생각과 판단입니다. 2009년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난 2017년 3월 8일까지 주식시장은 250% 상승했습니다. \$100,000 투자가 \$350,000으로 증가하는 세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 사람에겐 이런 놀라운 수익금을 받았지만, 이것저것 머리(?) 쓰며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백만장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의 자산이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만 13% 이상 증가하였고 새해 들어서도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A Rising Market Doesn't Enrich Everyone, WSJ, March 9, 2017)

주식시장을 두려워하는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통계를 하나 인용합니다. 1900년부터 현재까지 S&P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적이 35번 있었지만, 평균 10개월 이내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1929년부터 주식시장 호황기가 25번이었는데 평균 31개월 유지했습니다. 주식 상승 기간은 하락 장세보다 3배나 더 길고 평균 107%가 상승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식시장이 582% 상승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 시점을 항상 생각합니다. 시장이 20,000일 때는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17,000으로 하락한다 해도 투자하지 못합니다. 투자한 사람도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기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래저래 투자하지 못합니다.

20년 후 다우 존스가 40,000이라고 가정하면 어느 시점이나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돈이 있을 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20년 전 다우 존스는 5,000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기록으로 증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 중에서 누군가가 수익을 창출하면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외국인으로 주택 구입방법

한 국가의 자본축적은 역사적으로 한 지역에만 국한 되어있지 않았다. 뉴욕은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뺏기전까지는 뉴 암스테르담이었고, 알래스카도 러시아 땅이었다. 우리에게도 한때 광활한 만주반도가 고구려의 땅이었고,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일본 본토까지 이어지는 백제도 있었다. 그러던 우리는 1100년전에 고려라는 한반도에 국한된 국가로 전락했다. 불과 100년전만해도 땅을 넓히는 방법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국가적 대항은 총알대신 돈으로 치루는 전쟁이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 11경제대국인 한국국민의 자본은 아직도 대부분 한국에 있다. 오래전에 일본 친구가 "일본은 지진으로 침몰해도, 그보다 더 큰 영토를 남미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근의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은 자본투자의 다변화와 함께, 중국인들의 세계위상을 높이고 있다. 몇 백만 달러 고급주택 오픈하우스 파티에 중국손님은 모든 백인 에이전트들의 로망이 되었다. 이제는 한국인들도

해외주택구입을 많은 투자방법중에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찰구입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융자이다.

Cash- 현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장점은 스피드이다. 단 2주일안에 매매를 끝낼수 있다는 매력으로 셀러들이 같은 조건에서는 Cash바이어를 선호한다. 또한 융자조건을 계약서에 걸지 않기에, 조금의 가격협정도 가능하다. 다만, Cash로 퍼라도 4주 이상의 세틀먼트 기간이 필요하면, 융자바이어와의 경쟁력이 없다.

Mortgage- 미국에 영주권, 시민권, 취업비자가 없고 관광비자/방문비자만 있어도 주택융자가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서 25% 다운페이먼트, 최대 3백만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서류들을 한국에서 제공할수 있다.

융자의 3가지 기본 요건인 수입, 자산, 신용도 모두 한국의 정보가 제공된다.

Income: 수입증명은 회사측의 편지 한장이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

서등은 은행에서 받지 않는다.

회사측의 편지에는 융자신청인의 근무기간, 직책, 현 연봉등의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입증명의 이 편지 한장으로 만족된다.

Asset: 두달치의 은행 잔액증명서가 사용될수 있다. 최근 한국의 모든 은행들이 영어로 환율까지 제공해준다. 이 2장의 은행 잔액증명서가 자산증명의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Credit: 신용은 외국인 융자에서 만족시키기 가장 힘든 조건중에 하나다. 미국과 비슷한 신용정보기관이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등의 국민들은 크레딧 리포트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신용정보기관이 생겨서 영어로 크레딧 리포트를 제공한다고 한다. 만일 크레딧 리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를 발부 받으면 된다.

자산40만달러로 4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수 있던 시기에서, 이제는 주택을 자를 통해서, 40만달러의 자산을 다운페

이먼트 하고 10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옵션이 생긴 것이다. 환율이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원화를 이용한 주택구입은, 단기간에 같은 조건에서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 (1)

-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하라

김백두 씨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201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김백두 씨는 미국 세법 관련 용어나 서식 및 법 규정 등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번주는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의 소지자중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가?

먼저, 김백두 씨는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은 외국인(Alien)을 세무목적상 '거주자(Resident Alien)' 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는

- ①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 ②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중 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의 실제체

류기간이 183일 (= 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이상인 자를 말합니다(단,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김백두 씨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두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주자여부를 검토해 봅니다.

(사례1) 2016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김백두 씨가 2016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그가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검토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상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246일(2016년 일수 + 2015년 일수의 3분의 1 + 2014년 일수의 6분의 1 = 246일 + 0일 X (1/3) + 0일 X (1/6))이고, 2016년도 중 31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김백두 씨는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사례2) 2016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런데 김백두 씨가 2016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지난 3년간 체류일수는 92일

(2012년 일수 + 2011년 일수의 3분의 1 + 2010년 일수의 6분의 1 = 92일 + 0일 X (1/3) + 0일 X (1/6))로 183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김백두 씨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Dual-Status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첫번째 사례처럼 2016년 5월 1일 입국하여 2016년도말 현재 Resident Alien이 된 경우, Resident Alien 시작일은 입국일인 2016년 5월 1일입니다. 이는 입국일 전일인 2016년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김백두 씨는 입국일 전일인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 입국일인 5월 1일부터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이런 경우 김백두 씨는 Dual-Status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백두 씨처럼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되어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독신자(Single)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음

-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이 되었음
- 연말 현재 미국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과 결혼한 상태여야 함
-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함

이 규정을 선택하면, 김백두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입니다. 그러면 김백두 씨는 2016년 세금신고를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 해야합니다.

Nonresident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두번째 사례처럼 2016년 10월 1일에 입국하여 2016년도말 현재에도 Nonresident Alien인 경우는 Nonresident Alien으로 2016년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입국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 규정이 있습니다. 김백두 씨가 요건을 갖추어 First-Year Choice 규정을 선택하면 그는 입국일인 2016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며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백두 씨는 2016년도에 Dual-Status Alien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결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감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3월 넷째주)

●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영주권자들도 재입국이 힘들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소문으로 해외여행 자체를 취소하시는 영주권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들의 해외 여행 후 입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시 가지는 몇가지 법적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입국자들보다 훨씬 많은 Due Process Right 이 보장됩니다. Due Process 는 정부가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먼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은 외국인의 입국과정과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Arriving Alien 으로 'Admission' 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미국입국을 위한 미국정부의 법적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Returning Resident 자격으로

Admission 이 아닌 절차로 입국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외국인과 똑같이 Admission 이라는 입국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 당했을 경우
- 해외에 연속으로 18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 범죄행위에 연루됐을 경우(해외 체류 중)
- 재입국이 불가능한 범죄 기록이 있는 자
- 합법적인 입국장소가 아닌 장소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등

Returning Resident 로 입국할 때와 Arriving Alien 을 입국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입국거부 사유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eturning Resident 의 입국을 거부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당연히 Returning Resident 로 큰 문제 없이 입국하셔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외국인들과 같이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며 입국거부 사유도 영

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입국에 그리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니 평소와 같이 해외에 다니셔도 됩니다.

혹시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80일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시고 입국하신 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본인이 정말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권리의 고지 없이 영주권 포기서인 Form I-407에 서명하면 구금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입국심사관들의 횡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주권 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서명되어야 하고 설사 서명에 거부하더라도 이러한 거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영

주권의 포기 의사 또는 영주권 포기서의 서명 거부 자체로만으로 구금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입국심사관과 입씨름하거나 다툰이 생기면 영주권자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출국 전 반박할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비용 등 치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자라고 재입국 시 무조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시는 영주권자들이 이러한 심사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위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입국거부나 영주권 박탈은 아니니 출국 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무너져도 솟아날 오버자 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 H-1B는 4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약 5일 동안 서류를 받은 후 추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H-1B 추첨에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1B가 끝은 아닙니다. 설사 H-1B 추첨에서 되지 않더라도, 혹은 H-1B추첨에서는 되었지만 이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 O 비자를 포함한 다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H-1B무너져도 솟아날 O비자 있다", "망한 H-1B도 다시보자".

오늘은 많은 대안 중 O비자를 생각해보겠습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에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처럼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의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과 무관한 자유로운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즉, 전문대학 졸업자나 심지어 고졸인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흔히 적용이 되는 예술 직업군은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요리사 등입니다. 또한 운동 분야로 태권도 사범들에게 P비자의 대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O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종사하는 예술, 운동 분야에서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O비자는 H-1B비자와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H-1B와 달리 매 해 정해진 비자의 숫자가 없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4월 1일 이후 H-1B추첨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H-1B비자는 최소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이 정해져 있지만 O비자의 경우 정해져 있는 최소 임금 수준이 없고 임금의 형식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O비자 수혜자가 원하는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H-1B와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H-1B와 달리 고용주의 형태가 다양하여 에이전트 형태의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과연 수혜자가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통 이상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보통 이상의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수준 이상의 명성이 있고, 선두적이며, 잘 알려진 (Renowned, Leading, or Well-Known) 정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 예술, 연구, 사업 혹은 운동 분야와 관련된 국내의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면 고려를 해 볼만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은 없더라도 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고려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 경력, 미국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인터넷 상의 정보에만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비자들이 가능하며 각 비자별로 장단점은 무엇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2B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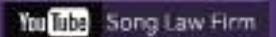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피자/아이스크림 연매상 \$600,000 이상 단독건물
좋은 매매가격 \$160,000 변화한 지역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0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SAT English + Literature Class

10주 일정으로 6-8학년을 위한 SSAT & 문학수업을 개강합니다. 2시간 30분 수업으로 주제별 문학 접근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어휘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한국식과 미국식을 접목하여 엄격하게 지도, 관리 합니다.

- 매주 토요일: 10:00am~12:30pm
- 380 Great Rd. #220, Acton, MA 01720
- 6~8 학년

4월 1일 개강

	주제	SSAT 단어
1주	Growing and Changing	1-100
2주	Growing and Changing	101-200
3주	Reaching Out	201-300
4주	Reaching Out	301-400
5주	Proving Yourself	401-500
6주	Proving Yourself	501-600
7주	Seeing it through	601-700
8주	Seeing it through	701-800
9주	Mysterious Way	801-900
10주	Mysterious Way	901-100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